

라오서(老舍)의 <四世同堂>에 나타난 傳統意識 비판과 抗日意識의 변화

이병호 육사 외국어학과 중국어 교수

1. 서론

라오서(老舍)의 장편소설 <四世同堂>은 일본군 점령하의 北京시민의 생활을 묘사한 것으로 선명한 시대적 색채를 띠고 있다. 작품은 北京 小羊圈 골목의 祁씨 일가를 중심으로 십여 호의 주민 백여 명의 北京 함락후의 항전수난기로 1937년 7·7 蘆溝橋사건에서 시작하여 北京의 함락, 上海 '8.13' 항전, 南京함락, 나아가 항전승리에 이르는 전쟁 상황의 변화가 小羊圈 주민들의 생활과 운명에 미친 영향을 기록하고 일제 침략자와 漢奸의 만행을 폭로하였으며, 함락 후 北京시민들의 망국의恨과 각성, 그리고 저항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근대사에서 8년에 걸친 항일전쟁은 중국인에게 엄청난 인명피해와 물질 손실을 주었지만, 국민의식의 주체적 자각을 바탕으로 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의 기초를 가져왔다. 8년 항쟁은 라오서로 하여금 민족문화와 민족성격의 장·단점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만들었으며, 그 예술적 결정이 <惶惑> <偷生> <饑荒>의 3부곡으로 이루어진 <四世同堂>이다. 작품은 작가의 중화민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항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신에게 익숙한 北京 小羊圈 골목의 몇 가정의 민중들로부터 제재를 취하고, 예술적으로 가공하여¹⁾, 중국인에게는 적에게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 있어 어떠한 침략자도 중화민족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민족정기를 나타내었다. 작품의 구조는 전체 100장으로 이루어진 삼부작인데, 제1부 <惶惑>은 제1장에서 제34장까지로 北京이 일본에 점령된 후 주민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다루었다. 小羊圈 5호의 祁씨 집안은 祁노인, 아들 祁天佑부부, 맏손자 祁瑞宣과 그의 아내 韻梅, 둘째 손자 祁瑞豐과 그의 아내 胖菊子, 셋째 손자로 대학생인 祁瑞全, 증손자·증손녀로 이루어진 4대가 함께 사는 집이다. 祁노인은 당혹해하지만 전쟁이 나도 北京만큼은 안전하리란 믿음이 있었다. 장손인 瑞宣은 항일의 당위성과 祁家를 이끌어 가야하는 책

논문접수일 : 2006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 2006년 9월 30일

1) 小羊圈 골목은 현재는 小柵家胡同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작은 골목이다. 라오서가 이 골목과 살던 집을 묘사한 것은 <四世同堂> 외에 자전체소설인 <小人物自述>과 역시 자전체 소설인 <正紅旗下>에서였다. 1943년 말, 부인 胡絮青이 北京을 탈출하여 라오서가 있는 北碚에 도착, 라오서는 함락 후의 北京 상황에 대해 胡絮青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계발을 받아 백여만 자에 이르는 장편 <四世同堂>을 창작하였다. 작가의 체험공간이 그대로 소설 공간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에, 유년기부터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도시의 지식뿐 아니라, 도시에 대한 감수성까지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祁家の 四合院이 소개한 小羊圈을 비롯하여 빈번하게 등장하는 護國寺, 元代 土城, 그리고 西直門 밖 해자(護城河) 등 內城의 서북쪽 일대는 청대부터 이어진 老舍의 만주족 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공간이었다. 청초 이래 황성을 차지한 만주족의 문화는 곧 북경의 주류문화가 되었고, 주류문화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漢人의 문화가 빠르게 수용되었다. 그래서 老舍는 북경문화를 자기 종족의 문화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임감으로 충과 효 사이에서 갈등한다. 1호의 전통 문인 錢默吟은 둘째 아들 仲石이 항일투쟁을 한 탓으로 투옥되어 갖은 고문을 당하고, 집안이 멸문된 후 항일투쟁만을 목표로 살아간다. 3호의 冠曉荷와 그의 아내 大赤包, 新民會의 藍東陽 등 漢奸들은 일본의 北京 점령을 계기로 일본에 아부하여 관직을 차지한다. 제2부 <兪生>은 제35장에서 67장까지로 大赤包·藍東陽·李空山과 같은 漢奸과 新民會 등 주구 단체의 전성기였다. 한편 祁家의 장손인 瑞宣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영국인 富山の 저술 작업을 돕다가 일본경찰에 잡혀가고, 이제까지 방관적 태도로 일관해 왔던 祁노인은 일본을 직접 대항해야 할 적으로 인식한다. 제3부 <饑荒>은 제68장에서 제100장까지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은 華北지방의 모든 자원을 전쟁을 위해 징발하였고, 北京주민들은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린다. 충과 효 사이에서 갈등하던 瑞宣은 국가 없이는 가정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錢默吟·祁瑞全을 도와 항일지하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많은 小羊圈의 민중들은 여러 이유로 불행한 최후를 맞았으며, 漢奸들도 일본의 전세가 기우는 것과 상응하여 몰락한다.

본고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국민성과 전통의식에 대한 비판, 그리고 민중의 각성·저항에 이르는 과정을 등장인물의 형상을 통해 살펴보고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적 특징을 검토하게 된다.

II. 전통의식 비판

루쉰(魯迅)은 <狂人日記>에서 광인의 입을 빌려 중국의 역사·문명을 고도로 개괄하여 ‘食人宴會’라고 비유하였지만, 전통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이나 격렬한 비판은 민족전통과 원기를 손상시키고 민족의 자존과 자신감을 상실케 하는 일면이 있다. 이제 <四世同堂>에 나타나는 전통문화와 의식에 대한 비판을 국민성 비판, 문화 비판, 가정문제와 여성문제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1. 국민성 문제

라오서는 가난한 만주족 가정에서 태어나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면서 사상적으로는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러한 사상의 변화과정은 그의 작품에 나타난다. 무작정 창작을 시작해서 내용은 3편의 장편소설과 예술적 기교와 사상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던 전성기 작품, 그리고 항전을 고무하기 위해 쓴 통속문에 작품과 모택동의 체제를 찬양한 중국 정권 수립 이후의 작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그의 사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국민성 비판과 문화 비판은 1949년 중국 정권 수립 이전 라오서 작품의 기본주제였다. 그는 인민의 낙후성이나 마비된 모습, 피동적인 면을 숨기지 않았으며, 이러한 국민성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폭로와 각성과정에 대한 묘사를 융합하여 새로운 사상적 깊이를 나타내었다. <四世同堂>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亡國奴가 된 北京시민들은 양민증이란 것이 ‘亡國奴의 낙인’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으려 하고, ‘獻鐵’이 적의 총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요구액을 채우려 애쓴다. 北海의 스케이트 대회가 침략자의 ‘평화’ 분식임을 알면서도 앞 다투어 구경하러 간다. 차마 먹을 수 없는 ‘공화면’ 몇 근을 받으려고 허약한 몸을 이끌고 뜨거운 태양 빛 아래에서 줄서 기다린다. 그러나 아무도 ‘일본 타도’를 외치지 못한다. 그러나 <四世同堂>에서는 국민성의 약점을 폭로하는 동시에 인민들의 각성과

저항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四世同堂>에는 국민성 개조라는 계몽주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으며²⁾, 항전·구국의 시대정신이 충분히 구현되었다. 라오서는 중국인이 제국주의로부터 멸시받는 중요한 원인은 국민성의 유약함과 나태함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성격의 구세대 인물형상은 초기소설에서 라오서가 가장 자신 있게 묘사한 인물유형이었다. 이는 그의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에 대한 묘사에는 그의 반봉건적식이 짙게 반영되어 있다. 이들 구식시민의 인물 성격은 여러 원인으로 낙후·보수·연약·타협 등의 약점을 띠게 되었다.³⁾ 이러한 약점에 대해 작가는 비판과 풍자를 가하였다. 라오서는 인물묘사를 통하여 중국의 낙후된 생활방식과 구습을 답습하려는 태도,自卑 심리, 안일을 추구하며 남에게 의지하려는 습성, 그리고 경쟁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여 조화를 이루려는 성격을 비판하였다. <四世同堂>에서 대부분의 인물은 선량하고, 정직하며, 규칙을 준수하고, 체면을 따지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반항의식이 결여된 양민이었다. 작가는 이민족의 점령 통치라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쉬운 극한 상황에 중국민족을 갖다 놓고 여기에 나타나는 그들의 저열한 품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작가는 일제 침략을 중국 민족의 의식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대중을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그 동안의 시각에서 한 걸음 나아가 그들을 역사 변혁의 주체로 인식하는, 진보적인 사상적 변화를 보인다. 라오서는 錢默吟의 입을 빌려 항일 전쟁이 한편으로는 적을 몰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쓰레기를 쓸어 내는 ‘중화민족의 대청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 내부의 쓰레기란 관직이 오를수록 돈을 벌 수 있다는 전통 관념과 노예노릇을 하더라도 고위 관리가 되겠다는 봉건적 사고방식, 안일을 피하는 습관 등을 가리키며, 이 모두는 민족의 유전병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작중인물 중, 大赤包·冠曉荷·李空山·祁瑞豐·藍東陽 등은 바로 이러한 봉건적인 사고방식과 습관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예이다.

소설가로서 라오서가 중국 현대문학에 크게 공헌한 점은 시민계층을 현대문학의 영역에 끌어들이며 北京시민을 중심으로 하나의 완정한 ‘예술세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특히 그가 잘 묘사한 것은 ‘구식’시민의 형상계열이다. 그들은 전통문화에 몰두해 있으며, 질은 봉건적 전통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의衣食의 충족함을 바랄 뿐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기를 희망한다. 관습에 얽매이고 보수적이며 분수를 지키고 참을성이 강하다는 것이 그들에게 공통된 문화심리이다. 작가는 희극적 과장으로 이들 구식시민의 정신적 병태를 폭로하고 전통문화와 국민성을 비판하였다. <四世同堂>의 祁노인이 그러한 유형의 대표로, 일본인이 北京을 점령했을 때도 약간의 양식과 소금에 절인 짬뽕만 준비하고 대문을 걸어 잠그면 만사대길이었다. 그러나 祁노인은 점차 각성하여 침략자에게 저항한다. 소설은 바로 祁노인의 사상·성격의 변화를 묘사함으로써 北京시민 내지 중

2) 각성한 하나하나의 개인이 근대국가 건설에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한 선각자의 계몽 하에 전개된 국민성개조 문제는 5.4 이래 중국 현대문학의 일관된 주제이기도 하였다. 嚴復 <原強>은 ‘鼓民力’ ‘開民智’ ‘新民德’으로 노예근성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하였고, 梁啟超 <新民論>은 ‘여러 민족의 自立之道를 참고하여 그 장점을 취하고 민족정신을 건립하자고 주장하였다. 민족정신이란 한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지탱해주는 정신적 지주로, 민족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념, 이상적 품격과 사유방식 등이다.

3) 라오서의 소설은 첫 창작품부터 낙후된 국민성에 대한 사색이라는 내용이 일관된다. <二馬> <貓城記> 등은 모두 상이한 각도에서 국민성 문제를 다루었다.

4) <四世同堂>(人民文學出版社) 50章 659p. ‘這次的抗戰應當是中華民族的大掃除，一方面須趕走敵人，一方面也該掃除清了自己的垃圾。我們的傳統的升官發財的觀念，封建的思想 - 就是一方面想作高官，一方面又甘心作奴隸 - 家庭制度，教育方法，和苟偷安的習慣都是民族的遺傳病’

화민족의 ‘국민성 약점’과 이들 약점이 사회변혁 속에서 개조되어 가는 과정을 반영하였다. 소설은 또한 제국주의 침략과 봉건적 전통윤리로 인해 변질된 민족의식을 비판함과 동시에 전통의식 속에서 발전적인 요소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 전통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반성과 애정을 보여준다.

2. 문화의식 문제

라오서는 만주족 출신으로 향토성이 강한 北京文化 속에서 성장하였으므로 정신적으로 滿洲旗人 문화의 哀歌적 색채가 물들어 있었다. 그는 北京文化 특유의 우아함이나 정교함, 그리고 함축적이고 편안한 美를 좋아하지만, 또한 이러한 미의 상실과 醜를 염려하는 感傷과 悲哀, 그리고 허전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5.4의 사상해방운동은 그에게 현대적 안목을 주었고, 20년대와 40년대의 후반기 영국과 미국 생활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동·서방 문화의 차이를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문화 문제를 사색하게 되었다. 라오서는 <大地龍蛇·序>에서 ‘한 문화의 생존에는 반드시 자아비판이 있어야 하며, 수시로 교정하여 자신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언제나 자기의 낡은 것을 가지고 허풍떨거나 교만하여 새로운 진보를 완고하게 거부한다면 자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⁵⁾ 그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느낀 후에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창작하였다. 그는 北京 시민사회에서 전통문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발굴하였는데, 국민성의 저열한 면을 비판함은 물론 중국 우수한 전통도덕으로부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화합적 요소를 찾아내어 현대사회와 현대문명의 위기를 보완하고 신·구문명의 단절을 봉합하려 하였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작품 속의 인물·사건·세부묘사 중에 스며들어, 그의 예술세계의 풍부한 문화내용을 만들고 있다.

라오서 작품에는 예의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예의는 이미 北京人의 기질화된 일종의 ‘문화성격’이었다.⁶⁾ <四世同堂>에는 ‘禱노인은 어려서부터 北京에서 성장하여 눈과 귀에 박히도록 滿洲旗人들에게 많은 규칙과 예절을 배웠다’ ‘천하가 아무리 혼란해도 우리 北京人은 절대로 예절을 잊지 않고 산다.’라고 묘사하였다. 문화적 소양이 없는 인력거꾼 崔씨도 이러한 北京 ‘예절’에 물들어 있어 차비를 내지 않는 일본 병사를 골목에 끌고 들어가 때렸지만, 여자 漢奸 大赤包에게 뺨을 맞았을 때는 대항하여 때리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사나이는 여자와 싸우지 않는다.’는 예절을 위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北京文化는 지식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학교사인 瑞宣은 台儿庄 대첩의 소식을 듣고 중국인으로서 매우 흥분하였지만 결코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치지 않았다.’ 北京의 장엄하고 점잖음은 그가 외치고 몸부림치는 것을 허용치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반드시 부드러워야 北京의 점잖음과 잘 조화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瑞宣은 자신에게는 신흥민족의 용맹하고 활동적이며, 싸우자면 싸우고, 감히 하나의 사업을 맡아 추진하며, 국가 보위나 혹은 과학실험을 위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박력이 부족함을 한탄하고 있다.⁷⁾

라오서는 5. 4 신문화운동과 魯迅의 사상계몽의 취지를 이어받아 주로 文化·禮俗·心理 측면에

5) <老舍全集> 第9卷 373p <大地龍蛇>(三幕話劇歌舞混合劇) 序文, 1941, 秋

6) 라오서의 다른 소설 <二馬>·<離婚>·<駱駝祥子> 등에 北京人의 허례적인 기질을 묘사한 장면이 다수 있다.

7) <四世同堂>(人民文學出版社) 第2部 40章 471p

서 전통문화의 성격에 대해 부단히 사고하였다. <四世同堂>에는 전통적인 의식주를 비롯한 사회적 관습이나 연중행사, 관혼상제의 통과례, 또는 민속예술이나 민간신앙 등 기층문화가 망라되어 있다. 小羊圈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풍속에 따라 명절을 즐기며 가족과 이웃 간에 사이좋게 살아왔다. 이러한 일상적인 삶의 내용은 오랜 역사를 통해 전승된 기층문화로서 중국인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공동체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이 北京을 점령한 후 이들이 맞이하는 단오절과 중추절, 결혼과 장례 등은 모두 예전과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다. 祁노인의 75회 생일잔치와 명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北京의 중추절 풍물인 토끼할아버지(兔兒爺)도 사라질 운명이 된다. 그 중에서 小羊圈 골목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은 선량한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이었다.⁸⁾ 이들은 모욕당하고 손해 보는 평범한 민중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중국민족의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적 힘이 내재해 있었다. 그들은 적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 서로 돕고 어려움을 나누며 亡國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四世同堂>에서 祁家の 사람들, 錢家の 사람들, 韻梅와 같은 여인들 등 대부분의 小羊圈의 주민들은 중국 전통문화와 도덕이 배출해 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자신의 풍속·습관을 사랑했으며 人情을 중시하고 애증이 분명하였다. 이들의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지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같은 전통문화의 분위기에서 생활하였고, 이웃이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왔고 외국침략자와 민족배신자를 미워하였다. 라오서는 일찍이 北京에는 바람을 제외하고는 매서운 것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항전을 통하여 北京人의 침략자에 저항하려는 결심은 北京의 바람보다 세차서 아무도 민족적 기개가 견고한 北京人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3. 가정문제와 여성문제

가족문화는 중국 현대작가의 창작 모티브의 하나였고, 봉건가족제도와 가족윤리에 대한 비판과 구가정의 몰락은 작가들의 화두였다. 구 가족제도와 예교의 폐단을 폭로한 <狂人日記>가 출현한 이후로 빠진(巴金)의 <激流三部曲>, 라오서의 <四世同堂>과 같은 대가정의 생활에서 제재를 취한 창작물이 다수 출현한다. 사실상 이들 작품도 정직한 가장이나 장자·장손이 구현해내는 희생과 책임감을 찬미하고 오히려 구가정의 훼손로 인해 초래되는 전통미덕의 상실을 애석해하는 감정이 나타나 있다. 실제로 1930년대 후기부터 봉건대가정은 중일전쟁의 충격 하에서 급속히 해체되고, 이에 따라 전통가정의 장유의 서열도 동요하기 시작한다. <激流三部曲>에서 장남인 覺新的 권위가 점차 신사상으로 무장한 동생 覺民과 覺慧의 도전을 받는 것처럼, <四世同堂>에서도 항일승리 후 瑞全이 祁家로 돌아오자, 장남인 瑞宣의 권위는 동요되며 매사에 동생의 지시를 받는다. 瑞宣은 장남·장손이 응당 지녀야 할 핵심적 지위를 상실한 것이며, 형제간의 長幼 질서의 변화는 바로 봉건 구가정이 장차 해체될 운명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봉건가정은 2·30년대 작가에 의하면 왕왕 ‘전제적 봉건왕국’ 이었고 인간지옥이었으며, 거기에 사는 청년남녀는 가정을 뛰쳐나와야 비로소

8) 일본의 北京 점령 이후, 일본인 때문에 죽은 小羊圈 골목의 주민들은 1호의 錢仲石, 錢孟石, 錢默吟의 부인, 5호의 祁天佑, 小妞兒, 4호의 小崔, 李四爺, 6호의 小文 부부 등으로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밝은 앞길과 자유로운 애정이 있었다. 그러나 <四世同堂>의 가정 서사는 가족 성원 간의 등급이 삼엄하지 않고 혈연을 기초로 한 가족 親情 위에 건립되었다. 바로 이러한 친밀한 감정이 祁家로 하여금 8년 전쟁의 유린을 당하면서도 해체되지 않고 단결하여 지탱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러한 구가정 특유의 응집력과 친화력은 영국인 富山을 감동시킨다. ‘서로 차이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그토록 화목하다니. 무슨 힘이 이들을 변화 속에서도 분열되어 흩어지지 않게 만드는지?’⁹⁾ 전통가정이 지니고 있는 정감 매력은 라오서의 작품에 진실하게 재현되었다.

라오서는 중국인의 나약함이나 안일을 추구하는 성격의 근원이 北京문화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비판한다. 또한 北京문화는 가족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라오서의 작품은 중국 가족문화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 요소에 대해 이성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봉건사회의 전형적 특징은 바로 등급질서이다. 전통 가족문화에는 등급관념·종법사상 등이 스며들어 있다. 개인은 자신의 정감과 의지를 가질 수 없으며, 개인이익은 가족과 국가이익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이러한 노예적 인격은 민족의 문화심리에 침전되어 있다. 祁노인은 가장으로서 자손들에게 상대방이 때려도 맞서 때려서는 안 된다고 노예성 교육을 시킨다. 사세동당의 4대인 현손 小順子は 어려서부터 이렇게 연약한 성격을 키워왔으므로 일본 아이가 때릴지라도 맞서 싸우지 못하고 오직 엄마를 찾을 뿐이었다.¹⁰⁾ 이러한 노예성 인격이나 심태는 바로 중국인이 근 백년간 외국인으로부터 모욕을 받은 원인의 하나가 된다. 어려서부터 양성된 자신을 굽혀 남에게 양보하는 나약성은 민족이 위급에 처했을 때 더욱 돌출된다. 祁天佑는 집에서는 효자이며 규정을 잘 지키는 상인이었다. 그도 일본인에게 인격적 모욕을 당하자, 원한을 품은 채 투신하는 것 외에는 다른 출로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孫七과 崔씨는 얼마간의 자존심과 반항의식은 지녔지만 행동력이 결여되어 다른 北京人과 마찬가지로 구차하게 살아가다 결국 일본인에게 생매장되거나 목이 잘리고 만다.

<四世同堂>에서는 서구문화를 흉내 내는 인물들은 거의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로 漢奸이 되어 비참한 말로를 걷는데 반해, 전통적인 관습과 가정윤리를 따르는 자의 삶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거기에 중국은 서구와는 다른 민족문화를 가졌으며 그것은 인간의 삶을 조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작가의 민족적 자부심이 깔려 있고, 독자들에게도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중국 현대문학에서 가족윤리를 다룬 작품은 가부장적 체제에 반항하는 주제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며 전통적 가족 미덕인 효성과 자애로움을 다룬 작품은 드물다. 물론 그러한 반봉건 주제의 작품들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신사상을 고무하고 봉건적 지배체제를 무너뜨리는데 기여하였다. <四世同堂>에서 祁씨 가정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충·효는 개성과 인격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가족 제도 하의 허위적인 예교와는 반대의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좁게는 평범한 일반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였으며, 넓게는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정신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이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체적 국민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민족적 자부심을 가질만한 문화가 꼭 필요하였다. 라오서는 <四世同堂>에서 전통적인 도덕관을 가진 인물들의 정신적 면모를

9) <四世同堂>(人民文學出版社) 第2部 48章 629p

10) <四世同堂>(人民文學出版社) 第2部 41章, 瑞宣은 祁노인과 딸 小順兒의 모습을 보고 국가의 운명과 가정교육문제에 대한 생각에 잠긴다. ‘이것은 망국의 가정교육이다.’ 엄격하고 합리적인 가정교육으로 아이들을 戰士로 키워야 한다고 다짐한다.

대담하고 유감없이 묘사했는데, 이것은 그가 항전을 통해 민중들과 폭 넓게 접촉함으로써 그들에게서 민족재생의 에너지를 발견하고 ‘중국적인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라오서는 <四世同堂>을 통해 중국을 유구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국가로 복원시키고 있으며, 수천 년의 문화전통이 가족관계에서 살아 숨 쉬게 하였다.¹¹⁾ 민중들의 절실한 삶의 문제를 전통적인 민중문화와 결부시켜 이야기를 전개한 것은 민족적 자부심의 확립과 국민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가는 <四世同堂>에서 韻梅를 전통사회의 현모양처의 대표로 소조하고, 그녀에게 중국 전통여성의 여러 미덕을 집중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노인을 공경하고 남편을 세심하게 돌보았으며 형제간에 우애 있게 처신했고 아이를 정성껏 양육하는 등 모든 가족들로 하여금 고난의 세월에도 가정의 따스함을 느끼게 하였다. 北京시민의 8년 항쟁의 환난 속에서 그녀의 시야와 포부도 점차 개방되어 가족에 대한 관심에서 이웃의 안전을 염려할 정도로 발전한다. 라오서는 韻梅를 대표로 하는 현모양처형의 여성에 대해서는 찬양했지만, 胖菊子·大赤包 등처럼 婦道を 지키지 않으며 민족의 절개를 잃고 지조 없이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 시종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또한 <四世同堂>에서 반면인물 혹은 남에게 혐오를 사는 형상은 대부분 호색한이었다. 李空山·藍東陽·冠曉荷·招弟·胖菊子와 같은 한간은 예외 없이 奸夫·淫女이며, 그들의 저열한 한간행위는 백일하에 드러난다. 이들 한 가정의 형제·자매·동서들은 하나는 정숙하고 하나는 음란하였으며, 그들의 정치입장과 도덕정조는 교묘하게 일치한다. 이는 작가의 人性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III. 항일의식의 변화와 민족 간의 평가

일제 치하 北京 주민들의 각성과 저항을 바탕으로 한 항일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민중의 주체성 확립과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그들의 일제에 대한 태도를 친일적·순응적·저항적 태도로 나누어 의식세계와 민족정기에 대해 살펴본다.

1. 전쟁 상황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태도

1935년부터 일본 군부는 華北의 풍부한 인구와 농산물, 광물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華北 침입의 구실을 만들려고 각종 모략으로 사건을 꾸몄다. 35년 6월, 일본은 중국 측에 항일 성향의 河北省 책임자의 교체, 국민정부군과 국민당 기관의 철폐, 항일운동의 금지, 비무장지대의 설정을 요구하고 關東軍은 언제라도 北京으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는 일본의 중국 침략이 만주를 넘어 전 중국 지배를 목표로 나아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37년 7. 7일, 일본은 北京 교외의 蘆溝橋에서 구

11) <四世同堂>(人民文學出版社) 第2部 48章, 영국인 富山은 祁씨 가족을 만나면서 한 눈에 중국의 역사를, 특히 격변 중의 중국 근대사를 보는 듯 했다. 祁노인은 清朝인의 대표로 富山이 가장 보기 원하는 유형의 중국인이며, 天佑부인은 滿말과 民國 사이의 사람, 아직도 옛날 규칙을 지니고 있다. 瑞宣은 순수한 民國人이다. 그와 조부는 연령으로는 40년 차이가 있지만 사상적으로는 1~2세기 차이가 나는 것 같았다. 중국 문화전통이 가정에 살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실을 만들어 중국에 대한 전면적 침략전쟁을 시작한다. 일본군은 1개월이면 전쟁이 종결된다고 천황에게 호언장담하였고, 천황도 일본군의 대담한 공격으로 중국은 곧 항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착오였다. ‘皇軍’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蔣介石 군대만이 아니라 항일구국의 투지에 불타는 6억의 중국 인민이었다. 일본군은 37년 말까지 華北 일대와 上海를 포함한 양자강 하류 지역을 점령하고 수도 南京을 공략하였지만, 국민당 정부는 武漢으로 이동하여 항일을 계속하였으며, 민중의 항전의지는 강해질 뿐이었다. 38년 10월, 일본군은 華南의 최대 도시인 廣州와 蔣介石의 총사령부가 있었던 武漢을 공략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다시 수도를 重慶으로 옮기고 항전을 계속하였다. 100만을 넘는 일본군은 중국의 도시와 철도, 점과 선을 겨우 유지했지만 결국 중국 인민의 늪에 빠져 진퇴가 불가능해졌다. 일본의 경제도 타격을 받아 기초물자의 결핍이 심각해졌고 전시 식량의 확보도 불안한 상태였다.

소설 줄거리의 발전에 따라 인민들의 염원과 전쟁 상황의 발전은 차이가 있었다. 北京 함락 후, 선량한 주민들은 南京정부에 희망을 걸고 국군의 승리 소식과 北京의 수복을 고대하였다. 특히 上海에서 일단 승리하면 北京도 수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한 역사 조건 하에서 北京 주민의 국민당정부에 대한 기대는 민중들의 진정한 애국정서의 발로였다. 그러나 소망과는 반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국민당 군대는 北京을 수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保定·太原·上海·南京 등을 연속해서 잃었다. 작가는 국민당 군대의 연속적인 패배가 北京 주민들에게 가져온 심리적 압박을 묘사하였다. 일본침략자는 대도시를 함락할 때마다 이를 지지하는 북경학생들의 시위를 강요하였다. 시위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점차 의식이 마비되어 치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위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민중들은 上海의 승리만이 이러한 망국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만약에 上海가 실패되면 南京도 지키기 힘들게 되고 華北은 영원히 일본인에게 할양될 것을 염려하였다. 그러나 민중들의 염원과 반대로 上海가 함락되었다. 소설에는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신문팔이 소년도 큰 소리로 적의 승리를 외치고 싶지 않아, 孫七이 이발하는 곳에 와서 작은 소리로 묻는다. ‘호외 보세요. 上海에서 철퇴했어요.’ 孫七은 놀라 면도칼을 떨어뜨린다. 호외는 ‘上海에서 皇軍의 대승리’라는 뉴스였다. 손님은 호외를 꾸겨 내던지고는 발로 짓밟았다. 또 골목에서는 崔씨와 程長順의 논쟁이 한창이었다. 程長順, ‘南京은 큰 강이 있고 요새가 있어 지킬 수 있다.’ 崔씨, ‘娘子關도 지형이 험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程長順, ‘南京은 南京이고 娘子關은 娘子關이야.’ 이들의 마음에는 국토 상실에 대한 애석함이 넘쳐흐른다. 또한 6호의 劉師傅는 퇴근하는 丁約翰을 만났다. 約翰의 오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劉師傅가 묻는다. 그의 영국대사관의 소식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約翰은 씩 웃으면서 上海는 끝났다고 대답하면서 피하려 한다. ‘그렇다면 南京은?’ 約翰은 南京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다. 劉師傅는 화가 나서 ‘南京은 우리의 國都가 아닌가? 당신은 중국사람 아니야?’ 그의 질문은 바로 約翰을 洋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여기에는 순수한 민중과 외세에 의존하는 洋奴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上海가 함락된 후 대부분의 민중들은 중앙정부의 항전의지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했으며 아무런 환상을 갖지 않게 되었다. 작가는 上海가 실패된 후 北京 주민들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南京은 어떡할까? 上海를 잃었는데 南京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마 회담을 하게 되겠지?’ ‘어떻게 회담을 하지?’ ‘아마 華北지역을 할양하게 되겠지.’ ‘그렇다면 北京은 영원히 일본 땅이 되겠네!’¹²⁾ 인민들

의 이러한 의구심은 국민당정부에 대한 불신임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그 묘사는 독특한 시각에서 국민당정부의 소극정책을 폭로하고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폭로와 비판은 표어나 구호의 방식이 아니라, 인물과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속에 용해된 진실하고 강력한 것이었다.

華北의 일본 군인들은 南京이 함락되었으니 지체 없이 華北정부를 수립하여 南京과 대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3月亡華論’은 南京 함락 후에도 중국군이 항복하지 않았고 또한 중국군의 台兒莊 대첩으로 허망한 꿈이 되었다. 전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본당국의 주민 통제 정책의 변화는 함락구 北京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太原·上海·南京에 이어 廣州가 함락되고 중국군은 武漢에서 철수하였다. 일본은 강화조건으로 華北지역의 영구할양을 요구하였고, 한간들은 자신의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환호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長沙에서 패하자, 일본은 華北을 확실하게 장악하려고 ‘치안강화’ ‘反共討匪’의 구호를 외치며 北京에 里長 등 구역책임자를 두어 군경의 치안유지를 돕게 하고 주민들은 良民證을 필히 휴대케 하였으며, 많은 학생과 교원을 공산당 혹은 국민당으로 지목하여 처형했다. 新民會는 정치훈련반을 열어 출세에 급급한 청년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선발하여 만주국이나 조선 혹은 일본으로 유학도 보냈고, 또한 극단을 창립하여 민중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노예화 교육 작품을 공연하였다. 한편 蔣介石 군사위원장의 ‘계속 항전 선언’ 발표는 자포자기하던 민중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일본인과 한간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중앙의 ‘계속 항전 선언’ 소식을 듣고 北京을 탈출하여 국가에 충성할 길을 모색하였다. 일본은 3개월이면 중국을 멸망시키고 전쟁을 끝낸다고 하였는데 1년간이나 싸우지 않았는가? 瑞宣은 중국인의 저항이 통쾌했고 자랑스러웠다.

라오서는 개인·가정·국가의 관계에서 가정과 국가는 같은 구조라는 생각하며 집안 다스림을 국가 통치의 기초라고 여겼다. 그러나 라오서 자신은 항일을 위해 노모와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함락구를 탈출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나라 일에만 봉사하였다. 그는 40년대 國家至上의 애국사상을 제창하고 실천에 옮긴 것이다. 사실상 <四世同堂>에서 라오서처럼 진정한 항일애국의식을 가지고 투쟁한 것은 오직 청년학생 瑞全과 錢默吟, 錢仲石 세 사람뿐이었다. 대부분은 선량하고 정직하며 체면을 중시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그야말로 ‘착한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반항의식이 결여된 양민이었다. 라오서는 중국이 부강하려면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민족의 자신감과 자존·자중의 정신을 진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論創作>에 표현되어 있다. ‘우리는 최근 2~30년 간 얼마나 큰 치욕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변화 속에 고통을 받았는가?’ ‘우리는 다시 정신이 마비되지 말고 사회와 현실을 직시하고 적의 총포가 얼마나 많은 수의 동포를 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라오서의 문예관이며, 동시에 정치·사회관이었다. 항전을 위해 가족을 떠나 단신으로 漢口에 간 라오서는 <抗戰文藝>를 발간하면서 항전승리의 위대한 힘은 인민대중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라오서는 중국의 민중들이 평소 노예와 같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만 외국 침략자가 조국을 침략해 올 때는 피로써 저항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¹²⁾

12) <四世同堂>(人民文學出版社), 31章 362p. ‘南京怎樣?’ ‘上海丟掉, 南京還能守嗎? 還繼續作戰嗎?’ ‘恐怕要和吧?’ ‘怎麼和呢?’ ‘華北恐怕是要割讓的吧?’ ‘那樣, 北平將永遠是日本人的了?’

13) <四世同堂> 第3部 82章 1026p. 瑞全이 북경 탈출 후 항촌의 민중과 접하면서 각성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작가 자신의 경험일 것이다.

소설은 함락구 인민의 운명을 심도 있게 반영한 것이지 침략자의 만행을 나열한 것은 아니다. 라오서는 특정한 생활환경과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하여 침략자가 인민에게 가져온 재난을 나타내었다. 인민의 고난은 자연스럽게 인물의 활동 속에 구체적인 정절과 함께 융해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작품은 비교적 풍부한 생활내용을 갖게 되며 독자는 마치 小羊圈 골목에서 생활한 것처럼 北京人民의 고난에 대해 구체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제3부 <飢荒>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오랜 동안 양식을 살 수 없었던 郝씨 가족은 식량구매증을 가지고 배급된 4~5 근의 식량을 사가지고 온다. 먼저 전 가족이 모여서 이 기괴한 식량에 대해 감정한다. 시고 떨어진맛에 곰팡내와 구린내가 진동하였다. 각종 색깔이 뒤섞인 이 ‘混合麵’을 보고 郝노인은 노여움에 온 몸을 떨었다. 韻梅가 양식을 사오는 것에서 온 가족이 식량을 감정하는 것,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조리하는 것에서 郝노인의 진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물 내심활동의 起伏에 따라 독자들은 郝노인과 똑같이 침략자의 암흑통치가 인민에게 가져온 물질상의 결핍과 정신적인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느끼게 된다. 치욕과 슬픔, 그리고 고난은 침략자가 만들어 준 것이다. 동시에 국민당정부의 소극항전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四世同堂>이 현실주의 창작방법으로 당시의 사회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은 자연히 국민당정부의 소극항전에 대한 폭로와 책망이 담겨있다.

<四世同堂>은 北京 함락구 민중의 삶의 모습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양떼’, ‘쥐구멍 속의 생쥐’, ‘싸움에 진 개’, ‘쓰레기 더미 위의 죽은 쥐’ ‘간음당한 과부’ 혹은 ‘자살할 용기도 없는 자’ 등으로 비유하였다.

2. 주요인물의 항일의식의 변화

<四世同堂>에서 라오서 창작사상의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작품의 역사적 안목이 깊어졌고 인민들의 적극성이 표현되었으며, 중국의 실정에 따라 관찰하고 변화하는 현실을 역사적 측면에서 표현한 점이다. <四世同堂>은 민족적인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제를 小羊圈 골목의 평범한 민중들로부터 체재를 취하여 중국인의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예술적으로 구현하였다. 작품에서 민중들은 역사의 주체이며 중국민족의 강인한 정신적 힘의 근원이었다. 이제 주요인물의 항일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작품에 나타나는 민족정기와 의협심, 민중의 주체성과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살펴본다.

1) 안일한 현실인식에서 각성·저항에 이르는 전형적 ‘구식’ 北京人-郝노인

北京 ‘구식’ 시민의 전형인 郝노인은 정치문제나 모든 분쟁에 대해 겁을 먹고 애써 피한다. 일본이 北京에 침략해 왔지만 약간의 식량을 준비하고 대문을 걸어 잠그면 만사대길이었다. 모두 망국의 노예가 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자신의 생일을 지낼 궁리를 했으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禮敎·習俗에 따라 체면과 걸치례를 따졌다. 郝노인의 생일은 8월 13일로 예전에는 중추절과 함께 보냈다. 어른으로서 장수한 노인으로서 후손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마음껏 먹도록 하면서 노인의 자애로움과 후덕함을 나타내었다. 일본이 北京을 침략하자, 즐거워야 할 명절의 분위기가 불안과 공포로 바뀌었다. 원래 郝노인의 현실인식은 안일하였었다. 오랜 동안 평온한 생활

을 해온 祁노인은 전쟁이 닥쳐왔을 때, 아직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 하였다. 그는 北京의 재난은 살다보면 피할 수 없는 두통처럼 며칠 지나면 자연이 해결되는 것으로 믿었다. ‘庚子년에 8국 연합군이 北京城으로 쳐들어왔었지. …8개국도 못했는데 얼마 안 되는 일본 놈들이 무얼 팔딱이겠어?’ 李四爺가 식량을 준비해야 된다고 충고하자, 祁노인은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다며 마치 諸葛亮이라도 된 듯 자신의 선견지명에 만족하였다. 그는 일본인이 자신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면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다만 편안한 삶을 추구할 뿐이며, 자신은 어느 누구도 저버린 적이 없으므로 평안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일본인은 그의 四世同堂이 조용히 사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생일도 지낼 수 없게 되고, 많은 이웃들이 일본인에게 죽고 조상의 성묘도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점차 적의 잔악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祁노인은 瑞宣의 체포에 분노하여 일본인들의 총구에 맞서 외치며 대들었고, 증손녀가 죽자 시신을 안고 일본인을 찾아가 항의하고 거리에 나가 일본의 죄악을 성토했다. 작품 속의 祁노인은 고난 속에서 부단히 성장한 개인 자였다. 그는 점차 仲石이가 일본병사들을 살해한 것이나 손자 瑞全이 항일을 위해 北京을 탈출한 것이 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祁노인은 무관심에서 점차 애국행위를 칭찬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믿지 않게 되었다. ‘앞으로는 대문을 고이지 말라. … 70여 세까지 헛살았어. 나의 방법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어’ 祁노인의 소중한 경험은 이제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 되었다. 이제 祁노인은 어떠한 중국인도 일본인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평생 中庸之道를 신봉해온 그였지만 민족의 대재난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 애국심과 저항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셋째 손자가 일제와 싸우다 희생될지라도 그것은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祁노인은 ‘노예가 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절망적 처지에 빠지자 마침내 용감하게 쫓겨하여 인간으로의 존엄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려고 일어섰다. 라오서는 소설에서 祁노인의 각성과정을 매우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묘사하였다. 외부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음은 그의 피동성과 낙후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겸손한 것은 어리석음과 정신적 마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수년간의 망국의 생활을 겪으며 침략자와 한간의 각종 죄행을 목격한 후 祁노인은 변한 것이다. 그는 공손함과 겸손함이 아들 祁天佑나 小文, 그리고 崔씨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음을 깨달은 것이다. 祁노인의 정신세계는 이미 흑백이 분명해졌다. 瑞豐이 한간 冠曉荷를 祁家에 머물게 하자, 祁노인은 노기충천하여 北京 함락 이래 이들이 저질러 온 악행을 꾸짖는다. 마치 주관이 뚜렷하고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 시비판단이 떨어지는 못난 사람을 나무라듯이 꾸짖는다. 祁노인의 변화는 인민들이 유약에서 굳셈으로, 마비에서 각성으로 나아간 것을 의미한다.

2) 총과 효 사이에서 갈등하는 대가정의 장손-瑞宣

瑞宣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문화심태, 그리고 교육문제를 결부하여 국민성 개선에 대해 사고하는 지식인이었다. 그는 영웅을 지닌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나라에 많은 영웅들의 출현을 기대한다. 항일에 목숨을 바친 영웅이 있어야 중국에도 사람이 있는 나라가 된다. 그래야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¹⁴⁾ 瑞宣은 항일에 대한 당위성과 장손으로서 가정을 지킬 책임감, 즉 총과 효 사이에서 갈등하다 항일을 버리고 가정을 택하였다. 사세동당의 족쇄가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선혈을 위대한 시대에 뿌렸을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부모를 돌보고 가정을 지키려던 결과는 어떠한가? 瑞宣 자신은 감옥에 갔다 왔고,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는 투신자살했으며, 둘째 瑞豐은 마누라를 漢奸에게 빼앗겨 王八이 되지 않았는가? 적의 통치하에서 가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허망한 꿈일 뿐이다. 그는 ‘국민이 물고기라면, 나라는 물이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전쟁 중에서 자신의 할 일을 찾아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집에 얽매이지 않았고 집에 대해 묻지 않게 되었다. 그는 錢默吟과 瑞全을 도와 지하 간행물의 편집책임을 맡았으며,¹⁴⁾ 학교에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자, 학생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그들의 민족 自卑感을 없애주려고 노력하였다.

3) 신국민의 기상-瑞全

蘆溝橋사건 당시부터 일본의 침략 음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은 祁家에서는 瑞全이었다. 그는 할아버지 祁노인의 안일한 현실인식에 대해 곧 바로 반박한다. ‘일본인이 蘆溝橋의 돌사자를 달란 다구요. 웃기지 마세요. 그들은 北京을 달라, 天津을 달라, 華北을 달라, 전 중국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예요.’ ‘일본인은 시종 우리를 발로 차고 때려도 소리를 낼 줄 모르는 개로 알아요.’ 瑞全은 이를 악 물며 일본이 北京을 점령하면, 아무도 밥을 먹어서는 안 될 거라고 외친다. 그는 선혈이 낭자하고 포화가 터지는 곳에서 청천백일기를 높이 들고 일장기를 짓밟으며 싸우고 싶었다. 백여 년간 외세의 압박 하에 시달리던 중국에서 드디어 이러한 청년이 배출된 것이다. 일본은 그 동안 국가의 존엄을 해치고 국토의 완정함을 손상했기 때문에 일본과 싸우는 것은 신국민의 책임이다. 瑞全은 항일투쟁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 하나는 민중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北京과 北京人에 대한 재인식이었다. 瑞全은 여러 곳을 여행하며 민중의 기상과 힘을 발견하고, 신중국은 응당 이러한 건실하고 순박한 힘으로부터 탄생해야 하며, 北京 등 부패한 도시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들 민중들의 교육수준은 낮고 생활도 어려웠지만 근면·성실·겸손·선량했다. 그들은 항전의 책임을 짊어지고 굶주리면서도 식량·돈, 심지어는 자제들을 국가에 헌납하였다. 험한 산을 뚫고 도로를 만든 것도, 삼으로 눈밭을 매우고 비행장을 닦은 것도, 적이 쳐들어오자 가옥을 불태우고 소마를 이끌고 國旗를 따라 철퇴한 것도 그들이었다. 그들은 세계대세를 모르고 심지어 자신의 성명도 쓸 줄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수천 년 내려오는 전통도덕이 새겨져 있어 시비를 명확히 구별하였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일본이 역지를 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중국인이었고 중국인임을 자랑스러워했다. 瑞全 자신은 약간의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 향민의 순박함과 힘, 그리고 땅에서 우리나라 오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예전 北京에 있을 때 瑞全은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민중’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였다. 그가 말하는 ‘민중’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며, 자신은 지식인으로 민중의 스승이나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제 향민들이 결코 어리석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민중에게서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다. 다음은 北京과 北京人에 대한 새

14) <四世同堂>(人民文學出版社) 第1部 27章 304p

15) <四世同堂>(人民文學出版社) 第3部 95章 1122p

로운 인식이었다. 그는 지하활동을 위해 北京에 돌아왔다. 먼저 瑞全은 기차역에서 특무에게 몸수색을 당했고, 약속된 공작금을 받지 못했으며, 또 다른 접선장소는 이미 적에게 발각·해체되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瑞全은 北京이 戰場보다 더 긴장되는 곳이며, 자신은 赤手空拳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錢默吟을 만나기 전에는 北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래된 성벽으로 백만 이상의 亡國奴를 감싸고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錢默吟과 같이 성실한 사람이 고문을 받고 적에게 저항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원래 瑞全은 밖에서 3~4년 떠도는 동안 집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고 北京에 냉담하려 했다. 이는 바로 국가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가족에 대한 염려를 잊어야 비로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었다. 小羊圈처럼 작은 골목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다니. 자신은 남과 북을 누비며 戰場을 찾아다녔는데 원래 戰場은 바로 그의 집이었고 골목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은 적을 찾아 밖으로 나갔지만, 적들은 北京에서 아버지와 이웃들을 살해했던 것이다. 錢默吟이야말로 적들의 눈앞에서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구국 투쟁을 전개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瑞全은 錢默吟을 통하여 항일승리 이후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깊은 진리를 깨우치게 된다. 瑞全은 중국 청년의 대표로 용맹성과 강력한 중국을 상징한다.

4) 北京의 진정한 항일투쟁의 영웅 - 錢默吟

錢默吟 일가의 경험에 대한 묘사는 <四世同堂>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다. 錢默吟은 화가 겸 시인으로 강직한 성품의 전통문인이었다. 평소 그의 마음은 평온하고 온화하였으나, 국난이 닥치자 더 없이 강직해졌다. 그의 둘째 아들 仲石이 30여명의 일본군이 탄 차를 운전하면서 함께 죽음의 길을 택한다. 한간 冠曉荷의 밀고로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울퉁은 대나무처럼 허리를 굽히지 않고 중국문인의 강인성을 보여주었다. 장남 孟石은 울분으로 사망하고 부인은 자살하여 錢씨 일가는 멸문지화를 당한다. 주민들이 짊어진 孟石의 棺은 바로 일제치하의 北京 생활을 상징한다. 주권을 잃은 땅에서의 삶이란 죽음을 이웃으로 삼는 생활이었다.

시인 錢默吟의 현실인식과 의식변화, 저항에 대해 살펴본다. 전통문인인 그는 본래 확고한 국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蘆溝橋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며 瑞全에게 말한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은 모두 나라 덕분이지. 나는 요 며칠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어. 나는 가난이나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직 北京城을 빼앗길까 두렵다네. 한 송이 꽃이 나무에서 자랄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 北京城도 그렇다네. 그것은 매우 아름답지만 만약 적의 손에 떨어진다면 꺾이어 땅에 떨어진 꽃과 다른 게 무엇이겠는가? 北京이 나무라면 우리는 꽃일세.’ 아들이 항일을 위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 나라는 영웅 한 명을 얻게 되는 거야.’라고 말할 정도로 국가의식이 투철하다. 태평세월에는 그에게 詩歌와 차와 술, 그리고 화초가 있었지만,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희생과 죽음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는 감옥에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회유도 경험한다. 그는 과거 國事에 수수방관하던 죄를 속죄하고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바치기로 결심한다. 출옥 후, 항일투쟁을 여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으며 실천을 통해 희생을 전제로 한 민족정신이 새 국가건설의 정신적인 힘임을 보여주었다.¹⁶⁾ 그는 항일에 종사하면서 전통문화와 한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이번 항전은 중화민족의 대청소가 되어야 한다. 적을

몰아내는 한편 민족의 쓰레기도 깨끗이 쓸어버려야 한다. 大赤包 같은 한간들은 민족의 종양덩어리이므로 칼로 오려내야 한다. 그리고 전통의 升官發財 관념과 봉건사상, 적의 노예가 되어도 관리가 되려는 생각, 잘못된 가정제도, 奴才를 키우는 교육방법, 안일을 탐하는 국민성 등은 모두 민족의 유전병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후일 그는 자신의 투쟁을 3단계로 요약하여 항일투쟁가로 성숙하여 北京에 돌아온 瑞宣에게 말한다. 1단계는 개인적인 가족의 원한을 갚기 위한 개인 영웅주의 혹은 보복주의였고, 2단계는 항일단체에 가입하여 합작하는 애국주의로 國恥를 갚기 위한 투쟁이었다. 3단계는 明月和尚의 영향을 받아 시야가 좀 더 넓어져 모든 전쟁을 소멸시키고 미래의 평화 건설에 목표를 두는 것이다. <四世同堂>은 많은 편폭으로 錢씨 일가의 불행한 운명을 묘사하면서 독자들에게 스스로 亡國奴의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나 함락구 동포를 亡國奴의 생활로부터 구하려면 항일투쟁에 나서 침략자를 몰아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5) 小羊圈 주민들의 의식변화

일제침략 이전, 오랜 역사를 지닌 小羊圈 골목의 수십 호 주민들은 서로 공경하고 도우며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었다. <四世同堂>은 이들 골목 주민들의 함락구에서의 생활경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야기의 主線은 祁노인 일가의 경험이며, 여기에서 전체의 골목으로 확산되고, 다시 北京사회의 여러 계층으로 확대되어 항전시기 함락구의 사회면모와 주민들의 고난에 찬 생활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침략자의 잔학한 통치 하의 北京은 마치 지옥과 같이 음산하고 공포로 가득하였다. 시인 錢默吟 일가가 멸문지화를 당했고, 인력거꾼 崔씨는 목이 잘렸으며, 이발사 孫七은 생매장 당하고, 포목상의 주인 祁天佑는 일본인의 압박으로 투신자살했으며, 小文 부부와 常二爺도 억울하게 죽었다. 그들의 직업, 사상적인 면모나 사람됨, 그리고 처세 방법은 각각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이유로 죽는다. 그들의 비극적 운명은 함락구 인민들의 공통된 고난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높은 개괄성을 지니며 호소력은 매우 강렬한 것이었다.

<四世同堂>의 ‘가난하고 소외된’ 小羊圈 주민들은 국난이 발생하자 나름대로 일제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비록 작은 행위일지라도 애국심의 발로였다. 예를 들면, 인력거꾼 崔씨가 일본병사를 구타하거나 漢奸이 차에 타는 것을 거부한 행위, 이발사 孫七이 생매장 당하면서 漢奸 冠曉荷를 꾸짖은 행위, 金三爺가 사돈인 錢默吟을 데리고 漢奸 冠曉荷·大赤包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행위 등은 개인적 의협심은 물론 민족정기를 지닌 행위였다. 또한 고물수집상 程長順이 일본의 시책과는 반대로 일본군의 포탄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구리와 철은 수집하지 않은 것도 양심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민족정기의 발로였다. 작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천막장인 劉사부와 같이 가난한 민중들이 北京을 탈출하여 항일투쟁에 나서는 것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라오서의 의협관은 2·30년대에는 인도주의와 정의감이 결합한 것이라면, 40년대는 여기에 민족정신이 결합된 선명한 현실성과 시대성을 지닌 것이었다. 특히 작가는 이전에 하층 시민을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파악했던 것과는 달리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그들의 역할을 긍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사상적으로 변화한 모습

16) <四世同堂>(人民文學出版社) 18章, 작가는 瑞宣의 입을 빌려 北京이 망한지 오래되도록 적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가 없음을 한탄한다.; 동서 27章, ‘瑞宣은 南京방송을 몰래 청취하며 일사들의 희생정신에 감탄하고 영웅을 지닌 민족은 정복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또한 고문에 굴복하지 않은 錢默吟을 중국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다.’

을 보이고 있다.

이제 小羊圈의 가난한 주민 李四爺·孫七·崔씨·劉師傅·程長順 등의 성격, 현실인식, 그리고 각 성과 투쟁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본다. 李四爺 노인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선행을 행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으며 세상의 고난이 클수록 이웃을 도우려했다. 그가 보기에 일본의 창궐은 잠시였다. 인력거꾼 崔씨의 성격은 반항적이었다. 이는 그의 인력거 상점의 주인이나 한간, 일본인에 대한 태도에서 쉽게 확인된다.¹⁷⁾ 그는 차라리 밥 한 끼를 덜 먹을지언정 冠曉荷나 瑞豐 같은 한간은 태우려 하지 않았다. 이발사 孫七도 일본인에 대해 매우 반항적이다. 그는 이장 李四爺가 일본군의 입성을 환영하는 일장기를 게양하라고 권하자 이를 거절했으며, 일본 특사의 피살소식을 듣고 ‘누가 우리 北京에 영웅이 없다고 말했는가?’ ‘죽으려면 큰 놈을 골라 죽여야지!’하며 통쾌하게 여겼다. 孫七은 또한 崔씨의 장례비로 약간의 돈을 지원해 주고, 이를 구실로 그의 부인을 기녀로 팔려는 高亦陀와 大赤包의 음모에 분개한다. ‘冠家놈들이 그 정도로 악독할 줄 몰랐어. 일본인이 여기에 계속 머물면 여기의 과부들이나 처녀들이 모두 娼妓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 못하지.’ 이처럼 孫七은 일본인과 한간에 대해 반항적이었다. 劉師傅은 ‘나는 부모가 불러도 일본인 앞에서는 사자춤을 출수 없소!’라고 말할 정도로 항일의식이 강한 인물로 결국 항일을 위해 北京을 탈출한다. 고물수집상인 程長順은 포탄의 원료로 활용되는 구리와 철을 수집하지 않아 중국국민으로서의 양심을 지켰다. 小羊圈의 주민들은 모두 錢默吟이 남의 미움을 사지 않는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錢默吟이 체포되고 혹형을 받자, 적의 모임을 알게 되었고 한간 冠家를 미워하였다. 이들이 錢 선생을 존경한 것은 평소의 교분이 두터워서가 아니라, 그가 목숨을 걸고 일본인과 싸우기 때문이었다. 瑞宣은 지식이 많지 않은 이들과 같은 평범한 민중들이 오히려 애국심이 더욱 깊으며 그러한 정감의 원천은 바로 중국의 전통문화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上海와 台兒莊의 무명용사들도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의 민중들로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이다.

3. 한간의 친일행적

<四世同堂>의 한간들은 冠曉荷와 大赤包, 招弟 등 冠씨 일가를 중심으로 모여든다. 이제 冠家에 출입하는 한간 藍東陽·瑞豐·胖菊子·李空山·高亦陀 등의 친일행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몰염치한 최고의 順民이며 漢奸의 중심 - 冠曉荷

冠曉荷는 가난하고 못 배운 李四爺·崔씨·孫七·劉師傅 등 골목주민에 비해 국가·민족·사회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아무런 관직을 주지 않은 蔣介石의 南京 정부를 증오했다. 그러한 증오가 발전하여 중국은 아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이 현지인을 발탁할 때 자신은 항일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용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왕조나 시대가 바뀌는 시기가 求官 활동에 적합한 시기이며 더욱이 자신은 그들에게 충성하려는 생각이 가득하지 않은가? 그의 첫 방법은 일본인들이 애호하는 중국고시를 이용

17) <四世同堂>(人民文學出版社) 第1部 16章 153p. ‘내가 뭐 차주의 아들인가? 그렇게 말을 잘 들을 수 없지!’

하여 문인·명사처럼 교제하는 것이었다. 그는 詩·書·畫, 화초재배 등의 면에서 탁월한 錢默吟을 끌어들이 詩社를 창립할 계획이었고, 그의 부인 大赤包는 일본 여인들과 마작을 하면서 의자매를 맺을 계획이었다. 물론 그의 계획은 瑞宣과 錢默吟에게 거절당한다. 또한 冠曉荷는 권력층에 접근하기 위하여 연령·주소·생일·기호 등 상세한 주석을 붙인 요인들의 인명록을 만들고 가능한 이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이처럼 冠曉荷는 백방으로 관직 확보에 노력했으나 관운이 오지 않았다. 그는 錢默吟의 아들이 일본병사들을 살해했다는 소문을 듣고, 일본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본헌병에게 밀고하고 그들을 冠家로 안내하였다. 비열하고 몰염치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부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과 권력·명예를 취하려고 선량한 사람들의 삶을 해치며, 특히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난세의 영웅이 된다. 한 정객이 冠曉荷에게 알려 준다. ‘대관이 되고 싶으면 일본 군관과 직접 손을 잡아야 한다. 시청에서 일하려면 天津派에 부탁해야 한다. 新民會는 일본군의 총구의 뒤를 바짝 따라다니며 민중들을 선무하므로 일본 군인은 이러한 자들을 더욱 많이 수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출세욕에 불타는 冠曉荷에게는 매우 좋은 정보였다. 수십 년에 걸친 군벌 간의 혼전은 冠曉荷와 같은 몰염치하고 무지한 奴才만을 양성하였다. 군벌이 양성한 이러한 奴才들은 외환이 없으면 사회를 부패시키고 외환이 생기면 국가가 빨리 망하게 만들었다.

후일 일본인은 이용가치가 없어진 大赤包를 제거하고 冠家의 재산을 몰수한다. 하지만 冠曉荷는 ‘일본인이 나에게 서운하게 할 이유가 없어. 일본인은 마누라에게 관직·금전·권력을 주었고 딸 招弟에게도 영예를 주었다. 자신도 일본인에게 정성을 다 하였다. 집을 세내 일본인의 구미에 맞게 수리한 후 다시 그들에게 세를 주었으며, 일본 아동에게도 인사했고, 특히 일본 군인에게는 먼 거리에서도 큰 절을 하였다. 일본을 미워하는 중국인을 고발하였고, 일본인이 발기한 시가행진이나 집회에는 꼭 참석하였다. 그리고 일본 관원에게는 기회만 되면 선물하였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도저히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후 일본인은 특무가 되겠다는 冠曉荷와 瑞豐을 체포하여 그들의 과거경력을 조사해 보니 완전한 順民이었다. 조사를 위해 天津에서 ‘中國通’을 초청해 왔다. 언어·태도·외모·기호 등의 면에서 감정한 결과 冠曉荷는 98점, 瑞豐은 조금 떨어지는 92점이었다. 중국통의 말에 의하면 평균 80점 이상이면 1등 順民인데, 이 두 명은 등급을 초과하는 순민이라는 것이다. 冠曉荷의 절하는 태도, 일본인의 중국어 억양을 흉내 낸 어조와 어휘 사용, 그리고 몸가짐은 일본인을 놀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이 北京을 점령한 3~4년 만에 이러한 중일 합작의 인물을 배출하다니! 일본인은 冠曉荷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결국 冠曉荷는 설사병을 앓다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消毒이란 구실로 일본 당국에 의해 생매장 당한다.

2) 西太后를 닮은 여자 漢奸 - 大赤包

大赤包는 나이가 이미 50살이 넘었지만 빨간 색 옷을 즐겨 입어 빨간 보자기라는 의미의 ‘大赤包’라는 별명이 생겼다. 작가는 오늘날과 같은 중국의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 西太后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大赤包의 일거일동이 西太后를 많이 닮았다고 풍자하고 있다. 大赤包는 일본의 北京 점령이 사실상 자신에게 활동할 하나의 세상을 열어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李空山の 도움으로 北京기녀검사소의 소장이 된다. 만약에 자신이 없었다면, 北京에 주재하는 일본군대는 여인을 접하기 힘들 것이고, 더욱이 화류병의 전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일본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자신과 일본인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영웅이 好漢을 만난 격이며 서로 협조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가능한 모든 집회에 참석했고 상품이 필요할 때는 상품을 기증했다. 일본인을 접대할 때는 北京문화의 정수를 통하여 일본인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 했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자신은 한간이 아니고 亡國奴도 아니며 일본인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면에서의 선생이었다. 후일 군부가 기녀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용가치가 없어진 그녀를 감옥에 보낸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이 기도한다. ‘일본 어르신들! 저들 악당들이 마구 지어내는 유언비어를 믿지 마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충신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충성심이 마치 효자·절부가 하늘을 감동시킨 것처럼 일본인을 감동시켜 자신을 석방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다가 점차 실성해 갔다.

3) 漢奸의 극치 - 藍東陽

藍東陽은 일본인 면접관 앞에서 눈물로 충성을 보여 그들을 감동시키고 新民會의 처장으로 발탁된다. 그가 일본인에게 충성하는 방법은 충성스러운 주구임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담배 불을 부쳐주고 차를 따라주며 우산을 찾아주고 차문을 열어주면서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升官’이란 단어를 떠올렸다. 원고를 쓴 다음에는 반드시 일본인을 찾아가 정정을 부탁했고, 한 두 글자라도 고쳐준 사람은 모두 그의 스승이었다. 그가 일본인에게 주는 선물은 정보였다. 비록 여러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부정확한 유언비어라도 일본인에게 제공하였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는 휴일에도 부하직원들을 출근시키고, ‘새 국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정신이 있어야 한다. … 오직 천황폐하께 부끄러움이 없길 바랄 뿐이다.’ 라고 정신훈화하며 충성심을 과시하였다. 新民會에서 주관한 招弟의 연극 공연에서 한 일본 군인이 여배우를 희롱하였다. 그녀가 저항하자 군인은 총을 쏘았고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결국 그 일본 군인도 살해되었다. 藍東陽은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나려고 희생물을 만든다. 冠家의 일원인 尤桐芳이 일본 군관을 살해했다고 고발하고, 여러 증거를 만들어 大赤包를 死地로 몰고 갔다.

藍東陽은 北京에 돌아온 瑞순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공포에 떨다가 병으로 쓰러진다. 병중의 藍東陽은 혼절하여 헛소리를 할 때도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일본의사와 간호사를 감동시켰다. 적당히 독살하라는 지시를 받은 그들이었지만, 천황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중국인이라고 상부에 보고하고 정성을 다해 치료하였다. 그리고 그의 몸의 구석구석을 엑스선으로 촬영하고 그 필름을 일본에 보내, 그의 간·심장·뇌·폐 등이 어떠한 특수구조로 되어있기에 그토록 일본에 충성하는 지를 연구케 하였다. 종전 직전, 교육국장이 된 東陽은 시찰의 구실로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원자탄 폭격으로 사망한다.

4) 노예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洋奴 - 丁約翰

丁約翰은 기독교도였던 부친이 의화단에게 살해되자, 洋人の 보호를 받다가 영국 대사관의 심부름꾼이 된다. 그는 冠家에 커피·위스키 등을 선물하면서 왕래하였다. 冠曉荷가 중일전쟁 상황을 묻자, ‘중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겠어요. 외국인들은 모두 말하지요. 대개 3개월, 길어야 반년이면 전쟁은 끝난대요.’ 마치 자신은 중국인이 아니고 영국인인 것처럼 덤덤하게 대답하였다. 그는 외세에

아부하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백년 이래 國恥史의 표본과 같은 존재로, 영국대사관의 노무자라도 일본대사관의 참사나 비서관보다 훨씬 고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다. 일본이 극동에서 영국인을 비롯한 서양인의 세력을 물리치자, 그는 일본을 새 주인으로 생각하고 小羊圈의 이장을 맡았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약간의 석탄을 확보하여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는 주민들로 하여금 사용케 하면서 시간을 계산하여 돈을 받아냈다. 그는 다만 외국 주인이 때리지 않고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랄 뿐이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일본이 영국을 물리쳤으므로 중국은 틀림없이 일본을 이길 수 없었다. 설사 일본이 패하고 영국과 미국이 권토중래하더라도 다시 자신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느 나라가 강하고 약한 지를 비교할 뿐이지, 중국이 응당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는 일본인이 北京과 중국의 절반을 강점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무수한 마을과 가옥을 불태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영국인 富山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그는 백여 년에 걸친 민족 自卑가 만들어낸 걸작품이었다.

5) 그 밖의 한간들

일본의 침략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한간들은 일본군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富와 貴를 동시에 이룰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군에게는 과별이 있으므로 먼저 주요세력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만 했다. 한간들은 ‘개국공신’의 자격을 획득하고 조각에 등용되려고 애를 썼다. 瑞宣은 ‘왜 중국에는 적의 주구가 되려는 자가 이토록 많은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전통문화·시대·교육·환경·정치·사회·민족성·개인의 야심 등 여러 면에서 원인을 분석한다. 瑞豐·藍東陽·冠曉荷 등 세 명의 지위는 괴뢰정부 요인들에 비해 낮았지만, 그 심리와 소망은 大한간들과 차이가 없었다. 일본인은 중국인에게 탐관오리나 배출하여 우민을 통치하는 정도의 자격만 인정하면서 물음치한 한간들을 이용하였다. 瑞宣은 한간을 처단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책임이며, 침략자인 늑대와 싸우기에 앞서 한간 冠曉荷·大赤包·藍東陽 등과 같은 여우를 먼저 소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瑞宣이 가장 실망한 것은 혁명투사로 정평이 있는 역사인물이 무릎을 꿇고 적의 주구가 된 것이었다. 혁명의 영수가 매국노가 된 것은 혁명의 역사와 지식인들의 熱血을 모독한 것이다. 일본방송은 汪精衛가 식견이 높고 현실감 있는 대정치가라고 선전하지만, 적에 기대어 권력을 얻고자 한 그의 행위는 중국인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이다. 혁명·애국이 중국인의 손에 들어오면 모두 거짓으로 바뀐다면 중국에도 희망이 있을까? 국제사회가 중국의 모든 것을 허위라고 인식한다면 누가 중국을 원조할 것인가? 汪精衛는 僞국민당으로 南京과 北京을 통할할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北京의 한간들은 汪精衛와 僞국민당의 華北 진출을 막기 위해 徐州를 남북분계선으로 국경선을 그어 華北의 화폐가 徐州를 넘지 못하고 南京의 화폐가 徐州를 넘지 못하도록 봉쇄할 것을 華北의 일본군벌에게 건의하였다. 徐州를 국경선으로 삼음에 따라 남쪽의 물자는 모두 일본으로 실려 가고 북방의 물자는 만주로 이동하게 되어 華北지역은 물자가 귀한 死地가 되고 물가는 팽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汪精衛는 불행을 가져온 셈이다.

전세가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北京의 일본인은 중국인과 의형제 혹은 수양부모를 맺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이는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 일본 민중들의 자발적인 행위였다. 이러한 시국에 가장 바빠진 것은 한간들이었다. 그들은 기회를 보아 이혼했는데, 이는 양다리

걸치기 행위로 재산과 처지를 보호하려는 교육지책이었다. 또한 일부의 한간들은 ‘曲線愛國’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자신의 부역행위를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작품은 한간을 ‘화장실 구더기’, ‘중화민족의 쓰레기’, ‘개’, ‘주구’, ‘파리 떼’, ‘메뚜기 떼’ 등 해충이나 동물로 풍자하거나 비유하였다.

4. 여러 민족에 대한 평가

‘중국인은 이민족에 대해 종래 2가지 칭호가 있었을 뿐이다. 하나는 禽獸이고 하나는 聖上이다. 친구로 부르거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칭한 적은 없다.’라는 말은 전통문화의 측면에서 외국과 교류 시 중국인의 심태를 관찰하고 그 낙후성을 폭로한 말이다.

1) 중국인

<四世同堂>에 나타난 외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에는 중국인의 각성하기 이전의 모습이 담겨 있다. 北京이 점령되자, 성당 야간학교 교사이기도 한 瑞宣은 성당의 이탈리아인 寶신부를 찾아가 상의한다. 寶신부는 瑞宣에게 말한다. ‘평소 당신들은 매우 애국적인 것 같았지만, 포성이 한번 울리자 모두 숨어버렸지’ 寶신부의 승리자에게는 영광을 돌리며 중국인을 무시하는 언행에 瑞宣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신부의 지적대로 北京人에게는 확실히 서양인과 같은 모험정신과 영웅적 기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¹⁸⁾ 한편 일본인은 무력으로 국토를 강탈하고 漢奸을 이용하여 文治를 시행하면 그 국토와 인민을 확실히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¹⁹⁾

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 특징은 마비된 의식이다. 保定 함락 경축행사는 처음으로 일본인과 대면하여 공개적으로 그들이 北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날이다. 평소 민중들은 학생시위를 모두 찬동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대부분 악의 세력에 대한 반항의 표시이며 신국민인 학생들이 새로운 역량을 표현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오늘은 학생들이 행복하려고 天安門으로 가는 것이다. 얼마 안 있으면 일본인들이 몰려들어 학생들의 의식을 마비시켜, 이들을 2등의 만주국인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일본학자 井田과 菊池 등은 ‘일본은 선진국이고 그의 과학·문예는 모두 대동아의 영도자이고 모범생이다. 나는 반전주의자이며, 대일본의 인민들도 모두 반전을 주장하며 평화를 애호한다. 일본과 고려·만주국·중국은 모두 同種·同文化이다. 중국도 일본의 지도를 받고 일본을 모범으로 삼아 대동아의 평화와 신질서를 구축하자.’고 강연한다. 이들 학자들도 일본 군국주의자의 주구가 되어 중국인을 희롱하지만, 아무도 이들의 거짓 반전 주장에 맞서 비판하지 못했다.

다음 중국인은 결단력이 부족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瑞豐은 마누라를 한간에 빼앗기고 王八이 되었지만 목숨을 걸고 싸울 생각은 못하고, 중국인의 좋은 ‘지혜’, 즉 멋지게 죽는 것보다 힘들어도 오래 사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외에도 중국인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장면은 소설 속에 많이 나타난다. 골목주민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싸우려 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의론이 분분할 때 錢

18) <四世同堂>(人民文學出版社) 第1部 8章 68p

19) <四世同堂>(人民文學出版社) 第2部 51章 669p

默吟이 보낸 것이라고 추측되는 하나의 전단이 배달되었다. ‘어서 결정하라. 동포들이여.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싸울 것인가? 우리의 살길은 우리의 뜨거운 피로 열어야 한다.’ 모두들 그의 의견에 동의하고 흥분하다가 얼마 안 되어 北京人の ‘지혜’가 발휘되었다. 식량 약탈로 목이 떨어지는 것보다 시신이라도 온전하게 보존되는 굶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원래 北京은 수백 년간 국도였기 때문에 北京人은 배타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인이 小羊圈으로 이사해오자 주민들은 불안을 느낀다. 北京이 일본에 망한 후에 그들이 이사해왔기 때문에 반드시 새 이웃을 정복자로 인정해야 했다. 주민들은 조선과 대만이 일본에게 어떻게 망하고 빼앗겼으며, 일본인이 조선인과 대만인을 어떻게 노예로 부리고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들은 적이 있었다. 지금 조선인과 대만인을 학대하는 자들이 그들의 면전에 나타난 것이다. 별로 대단치 않은 작은 골목에도 일본인이 나타났으니 이제 모든 北京은 일본의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만약에 일본이 北京에 조용히 들어왔다면 北京人은 일본의 침략을 모르는 척하고 넘겨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은 승리를 휘장처럼 가슴에 달고 들어왔다. 그들은 무리지어 北京에 들어와 각 골목으로 분산되어 거주하였다. 北京人은 각 골목에 분산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표면적으로 교사나 상인일지라도 실상은 정탐이라고 생각하였다. 골목에 한 두 집의 일본인이 있더라도 중·일간의 원한은 이 골목에서 수십 년 더 연장될 것이다. 北京人의 일본인에 대한 증오는 마치 고양이와 개처럼 본능적으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지 결코 한 시기 한 사건의 충돌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일본인은 北京人의 두통거리가 되었다. 北京人의 겸손·성실성·조용함·넉넉함·우아함 등과 같은 덕성이 일본인을 보는 순간 사라져버렸다. 일본인은 자신들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므로 北京을, 중국을, 전 아시아를, 나아가 전 세계를 자신들이 점령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한간과 침략자는 썩은 고기와 파리 때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썩은 고기는 파리 때를 부르기 때문이다. 冠家와 같은 한간의 존재가 나라의 오점임을 명확히 알아야, 왜 일본에 반항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한 내부의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에게 건강한 의식과 문화가 있어야 비로소 침략자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

2) 일본인

일본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정치로 군사를 결정짓지 않고, 독일이나 이태리처럼 군사로 정치를 결정짓지도 않는다. 일본인은 그들의 민족성격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²⁰⁾ <四世同堂>에 나타나는 일본인의 민족성은 먼저 죽음에 담대함과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들 수 있다. 1호의 일본 여인은 철부지아이와 함께 눈물 한 방을 흘리지 않고 출정하는 남편을 전송하며 격려하였다. 후일 남편의 전사 통보와 유골이 전해지자, 어른이나 아이 모두 의연한 태도로 이를 받아들인다. 중국인의 경우라면 어떨까? 瑞宣의 머리에는 통곡하는 어른과 엄마의 옷소매를 잡고 징징거릴 중국 아이가 연상되었다. 죽음에 담담한 일본인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중국인, 그것은 문화특성의 차이에서 온다고 瑞宣은 생각한다.

둘째는 호전성과 군사위주의 사고이다. 일본의 정치는 군사의 시종일 뿐이다. 그들은 어떠한 ‘주

20) <四世同堂> 第1部 <惶惑> 7章 58p

의'나 '이념'을 제기하기 보다는 군인들이 먼저 문제를 일으킨 후에 기만적인 선전과 논리를 전개한다. 그들은 여기 저기 대포 몇 발 날리면 중국 정부와 인민이 강화를 애걸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일본 군인들은 총과 대포로 北京과 天津을 함락하여 군사점령의 방식을 취하면서 정치적 해결을 기다리고 동시에 약탈을 실시하였다. 중국군과 민중들의 上海항전과 南京정부의 전면 항전 선언은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한간들을 앞세워 北京과 天津을 지키기 시작한다. 모든 일본인은 군인들의 충혼을 추모했다. 장엄한 추도회는 마치 역사는 새로 쓰여야 하고 중국은 반드시 전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같았다. 전 일본민족이 광분하는 호전성은 일본인 교사 山木의 감정을 鐵石처럼 무정하게 만들어 아들의 전사통보를 받고도 '일본인은 영웅의 순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랑스럽게 전교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강연하였다.

셋째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부족이다. 문화이해를 기초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국제간의 우의가 돈독해지며 비로소 세계에는 평화가 온다. 일본인의 방법은 이와 반대이다. 그들은 주로 漢奸을 통해 중국인과 중국문화를 평가하였다. 마치 도적질을 하는데 그 집의 개에게 뇌물로 먹이를 주고 그 집의 귀한 물건을 훔쳐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므로 주인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어느 민족도 그들의 노예가 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 중국인의 항전은 그들이 결코 주인 민족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北京과 天津이 함락된 이후에도 중국이 전면 항전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세계평화는 반드시 민족 간의 평등과 자유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악독함이다. 일본 특사가 살해된 사건 이후, 일본인은 이용가치가 없어진 종전의 한간들을 제거하고 친일적 학자·교수 출신의 새 인물을 등용하여 민심을 수습하려 한다. 小羊圈 사람들은 이용가치가 떨어진 한간 大赤包를 냉정하게 제거하는 일본의 악독함을 보았다. 일본인은 한간에 죄를 짓도록 만든 후 자신은 착한 사람으로 가장하고 한간을 제거한다. 동시에 한간이 굶어모은 재물 뿐 아니라 원래의 재산까지 모두 압수하였다.

다섯째, 작은 일에는 섬세하나 큰 지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크게 보면 일본인에게는 독창적인 철학이나 문예·음악·회화·과학이 없어 그들에게는 심오한 사상이나 탁월한 식견이 없다. 작은 일에는 꼼꼼하게 온 힘을 기울이나 왕왕 큰 것을 잇는다. 瑞宣은 일본인이 작은 일에는 총명하나 큰 일에는 명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駱 노인이 죽은 증손녀를 품에 안고 일본인에게 항의하려고 기를 쓰며 대문을 나서고 있을 때, 이미 패전소식을 들어 알고 있는 3호의 일본인은 마치 시가전을 준비하듯 대문을 걸어 잠그고 무거운 물건을 옮겨다 대문을 고여 놓았다. 그리고 방안에 들어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 군벌이 전쟁을 야기했을 때는 막을 용기가 없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침략전쟁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통쾌하게 여기고 환호했다. 이제 영광과 특권은 삼시간에 사라지고 전쟁은 하나의 악몽이 되었다. 그들은 아름다운 北京을, 그리고 근사한 집과 넉넉하던 생활을 모두 버리고 죄수처럼 본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하였다. 만일 부근의 중국인들이 달려와 복수한다면 그들은 생명도 타향에서 잃어야 할 것이다.

3) 고려인(조선인)

<四世同堂>에서 고려인에 대한 묘사는 많지 않지만, 대체로 불량한 품성을 지닌 사악한 존재로 묘사하였다. 인력거꾼 崔씨는 일전에 고려인이 외진 곳에 가자고 한 후 인력거꾼을 살해하고 인력거를 빼앗아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인은 일본인이 교육해낸 자들이 아닌가? 지금 내 차에는 진짜 일본인이 타고 있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한 순간에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지.’ 소설의 다른 장면에서도 역시 물건을 약탈하는 불량한 자로 묘사되어 있다. 물자가 귀해진 北京에서 일본 여인들은 시장이나 골목에서 물건만 보이면 빼앗았다. 그들에게 배급된 식량은 중국인보다는 많고 질도 좋았지만 먹기에 부족하였고, 또한 중국 경찰이나 일본 헌병은 그들의 약탈행위를 묵인했기 때문이었다. 일본 여인의 약탈에 앞장선 것은 조선인이었으며, 그들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중국인 상점의 수박을 먹어치우고 몇 개는 발로 밟아버린다. 재중 한국인의 형상을 항일영웅형상,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보통 조선인 형상, 그리고 일제 주구의 형상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때, 라오서의 소설에 나오는 조선인은 대체로 일제 주구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점은 巴金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²¹⁾

4) 영국인

일본에는 小를 영국에는 大를 붙여 ‘소일본’ ‘대영국’하는 식으로 각각의 이미지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富山은 영국의 遠東에서의 이익이 침략적 수단으로 획득된 것임을 알았지만, 그 과실을 두 손으로 일본인에게 바치는 것은 싫었다. 그의 심리는 중국을 동정하면서도 영일동맹이 지속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일본의 도전으로 영일동맹은 이제 희망이 없어졌다. 영국은 일본에 고개를 숙일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도와 함께 항일에 나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冠曉荷·大赤包·藍東陽·胖菊子·丁約翰 등 한간들이 마작을 하려고 冠家에 모여든다. 우연히 瑞宣을 만나자, 冠曉荷가 떠벌린다. ‘우리 골목은 작지만 나의 가족이 일본 관리이고, 邢 선생이 영국 관리이니 우리 골목이 바로 국제연맹이요.’ 瑞宣은 불쾌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초대에 불응하자, 瑞豐이 말한다. ‘형은 쓸데없는 공부만 했어요. 영어는 잘하지만, 사회를 전혀 몰라요. 일본인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지요. 정말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에 約翰이 말한다. ‘원래 영국 사람이 다 그래요. 그 양반도 영국 기질이예요, 그래서 영국대사관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冠曉荷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맞아요! 花臉을 창하는 자는 거칠어야 하고, 花眉을 창하는 자는 고와야 되는 법이지요. 각자 수법이 다른 거지요.’ 그 후 大赤包가 옥사하고 冠家が 망하게 되자, 아무도 冠曉荷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만 丁約翰이 한 마디 한다. ‘영국인은 일본인과는 다르지. 일본인은 안면을 바꾸고 사람을 모른 채 하지만 영국인은 언제나 변함없는 한 마음이야.’ 約翰은 영국인의 고집스러운 기질과 변함없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21) 한국의 항일운동을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계열, 아나키즘계열 셋으로 구분할 때. 그중 아나키즘계열의 항일운동가의 활동과 巴金의 행동반경이 상당 정도 겹쳐진다. 巴金의 작품 중 <불(火)>에는 한국인 아나키스트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불(火)> 1부는 37년 가을 上海 전투를 배경으로 1.海가 함락되기까지 청년들의 항일구국 운동을 묘사하고, 한·중 양국인의 항일을 위한 연합을 보여주고 있다.

5) 北京과 北京人에 대한 비유

원래 北京은 무술변법·의화단 사건·蘆溝橋사건 등과 같은 혼란기에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다. 北京人은 이러한 역사를 겪으면서 단념과 달관이 습성화되었으며, 만주팔기의 우아하고 품위 있는 귀족문화를 계승하여 새 기르거나 화초 재배 등의 생활예술품을 중시하지만, 일하기 싫어하고 보수적이며 겉치레와 체면의식이 강하다. 소설은 일본에게 점령당해 치욕과 오염으로 얼룩진 北京을 ‘간음당한 여인’이나 ‘방향타를 잃은 외로운 배’로 비유하였다.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일본 본토가 가령 천하제일이라면, 조선은 제2이고, 만주는 제3, 몽고는 제4, 南京이 제5가 되고 가련한 北京은 여섯 번째로 떨어진다. 설사 한간들이 北京을 南京과 유사한 지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더라도 南京에는 여하튼 정부가 있는데 北京은 시종 華北 일본군 사령관의 부속물이었다. 北京은 전국을 향해 명령을 발하지 못하고, 그 권한이 河北·河南·山東·山西를 넘지 못하며 또한 濟南·太原·開封 등에는 각각 일본군 사령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었다. 각 사령관은 바로 하나의 군벌이었다. 華北은 북벌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이며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張宗昌이 할거하며 稱王했었는데, 지금은 일본 군인으로 대체된 것뿐이었다. 華北에는 ‘정치’가 없고 다만 군사점령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는 일본 군인들이 미소를 짓던 위엄을 부리던 좌우지간 죽은 개처럼 매 맞고 발로 채었다.

헛웃음을 잘 치는 北京人, 스스로 나서지 못하고 언제나 영원한 관객으로 구경하려는 北京人, 분명 北京人에게는 서양인과 같은 모험정신과 영웅적 기개가 결핍되어 있다. 北京人 중 99%는 죽을 때까지 적에게 저항하지 않다가 조용히 눈을 감는다. 北京이 망한지 오래되지만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운 사람은 거의 없었다. 錢默吟은 瑞宣과 함께 한탄한다. ‘우리의 문화는 인습에 얽매여 구차하게 안일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만 양성하였지 격렬한 壯志를 지닌 대장부는 배출하지 못하였다.’ ‘만일 北京의 모든 사람들이 불끈 주먹을 쥐고 일어선다면, 죽은 개처럼 한 마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발로 차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瑞宣 자신도 손은 있었으나 주먹이 없었다.

北京의 주민들은 도살자의 칼 아래에 놓인 돼지나 양처럼 언제고 흉한 일을 당하였다. 北京人은 굶어 죽어도 적과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굴욕을 참고 얻은 안일을 명철보신이라고 부르며 지금 막 이러한 굴욕을 향수하고 있다. 일본인이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면, 그들은 용사들의 南苑에서의 희생이나 감옥에서 받는 동포들의 고난을 잊고 웃고 떠들며 구경한다. 많은 청소년들은 일본인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시가행진에 습관이 되었고, 일본인 교관의 낮이 익었으며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일본신문도 볼 줄 알았다. 원래 그들은 중화민족의 꽃이었는데, 지금은 일본인의 노리개로 변했다. 굴욕을 평화로 여기며 적과 감히 싸우지 못하는 그들은 동족 간에는 서로 싸우며 다투어 일본인에게 웃음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北京人은 본래 재난이 닥치면 참고 견딘다. 재난이 물러가면 복수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고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할 뿐이지 역사를 창조하거나 바꿀 생각은 하지 못한다. 설사 역풍이 불더라도 변함없는 처세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며, 적에게 반격을 가하지 않는다. 일본인은 흉악한 짓을 많이 했다. 그리고 행복하였다. 8년의 점령은 너무나 긴 기간이었다. 하지만 北京의 6~7백년의 오랜 역사에 비하면 8년은 대단한 것이 못된다. 아무도 일본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IV. 문학 표현상의 특징

라오서는 인물형상의 소조에서 심리묘사와 초상묘사를 함께 사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라오서는 소설 창작의 중심은 인물의 소조이며, 불후의 인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창조라고 말하였다.²²⁾ <四世同堂>에 출현하는 인물은 중학교 교사·시인·천막장인·이발사·인력거꾼·포복점 주인·대학교수·영국 외교관·경극배우·相聲 소리꾼·묘지기·짐꾼, 그리고 漢奸·특무·기녀·불량배 등 50여 직종, 백 삼십여 명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들 인물은 각기 독특한 특색을 지닌 인물의 계열을 이루며 민족의 시대적인 개성을 지니고 있다. 작품은 祁씨 가족과 錢씨 가족, 그리고 小羊圈 골목의 대부분의 가난한 민중들은 전통문화에 충실하며 애국적이고 긍정적인 인물로 형상화하고, 冠曉荷와 그의 아내 大赤包, 瑞豐부부와 藍東陽, 高亦陀등은 매국적이며 기회주의적 漢奸으로 형상화하여, 이들 선악 두 부류의 대립구도로 사건을 전개한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구도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불합리한 봉건전통을 일소하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치는 이중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항일전쟁의 역사적 성격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四世同堂>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을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묘사·초상묘사, 그리고 언어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1. 인물형상 창조

라오서는 창작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독자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라오서는 주로 인물형상 창조를 통하여 작가의 의도, 즉 가치관·사회이상·도덕관념·심미취미 등을 표현하였다.

<四世同堂>에서 祁노인은 대가족의 家長으로 曹禺나 巴金 작품에 나오는 사나운 봉건가장과는 달리 온후하고 자상한 어른이었다. 그는 보통의 중국인처럼 겸손하며 순종적이나 예의를 중시하는 미덕도 지니고 있어 가족에게 잘못이 있으면 엄격히 꾸짖었다. 큰 며느리 韻梅의 눈에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한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위였다. 그러나 祁노인은 전형적인 北京 구식시민으로 그의 몸에는 北京의 옛 시민문화의 정수가 집중되어 있다. 그의 성격 특징은 나약하고 소심하며 고지식하고 안일을 탐한다는 점이다. 이는 작가에게 가장 익숙한 성격으로, 老馬(<二馬>)나 張大哥(<離婚>)와 같은 구식시민 유형의 연속이다.²³⁾ 전통문화와 봉건사상에 물들어 있는 祁노인과 같은 유형의 ‘구식 중국인’들은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매사에 자족하며 편안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관습

22) <老舍全集>(人民文學出版社) 第16卷 241p, <人物的描寫> ‘세계에 武松이나 林黛玉 같은 불후의 인물 몇을 첨가한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창조이다. 소설의 성패는 인물을 기준으로 하며 事實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인물만이 영원하다.’;<老舍全集>(人民文學出版社) 第16卷 741p, <怎樣寫小說> ‘創造人物是小說家的第一項任務…狄更司到了今天還有很多讀者, 還被推崇爲偉大的作家, 難道是因爲他的故事複雜嗎? 不! 他創造出許多的人哪! 他的人物…都成爲永遠不朽的了!’

23) <二馬> <老張的哲學> <趙子龍> 등 3편의 소설은 과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시민사회의 모습을 나타내어 어느 정도 구중국의 암흑과 민족적 고질을 폭로하였다. <離婚>에는 당시 시민문화의 핵심이 되는 타협·연약·얼렁뚱땅함·비굴·질충·평화·이기주의·저속함, 안일추구와 상호 알력 등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문화심태는 北京 특유의 것으로 신선한 외래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폐이한 문화형태이었다. 라오서는 ‘문화’로 시민세계를 老派시민·新派시민 그리고 正派시민 등 몇 종류의 상이한 인물계열로 분할하였다. 각 유형의 인물은 각각 일정한 문화내용을 지닌다. 라오서가 가장 잘 묘사한 것은 老派시민(구식시민) 형상이었다.

에 얽매이고 보수적이며 분수를 지키고 참을성이 강하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문화심리이다. 祁노인의 손자로 중학 교사였던 瑞宣도 구식시민의 계열에 속한다. 그는 현대적 교육을 받아 현대적 의식도 보유하고 있었고 애국심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北京文化가 키워낸 祁家の 장손으로 그에게는 현대사조의 충격으로 쇠퇴해가는 北京文化의 갈등과 혼란이 나타나 있다. 민족 위난의 시기, 그는 ‘전쟁 중에 자신의 역할을 찾아냈지만’, 가족문제로 인한 忠과 孝 사이에서 끝없는 정신적 고뇌에 빠진다. 소설은 그의 이러한 성격적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전통문화의 부정적 면의 영향이 나타나 있다. 소설은 祁노인과 瑞宣의 사상과 성격의 묘사를 통하여 北京시민 내지 전체 민족의 ‘국민성적 약점’, 그리고 이들 약점이 사회변혁 중에서 개조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소설의 서술에서 심리 분석적 방법과 외모와 표정·행동 등의 肖像묘사를 결합하여 인물의 내심 세계를 나타내는 것은 라오서 인물형상 소조의 특징이다. 라오서는 인물의 심리와 행동·표정을 결합하여 묘사하는데 능숙하였다. 사람의 행동과 표정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 심리활동의 외재적 표현이므로, 심리묘사와 인물의 행동과 표정을 결합하여 內와 外를 서로 호응케 함으로써 더욱 높은 예술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四世同堂>의 인물의 성격은 매우 생동하고 풍만하다. 그 원인은 작가가 인물 성격의 복잡성을 중점적으로 잘 표현한데 있다. 이러한 예술적 추구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瑞宣의 형상소조이다. 瑞宣은 祁노인의 장손이며 짐작고 온화한 중학교사로, 정직하고 선량하며 애국심이 강하다. 北京이 함락되자, 그는 평소의 차분함을 잃고 큰 고통에 빠진다. 그는 나라를 위해 투쟁에 나서려는 것이 자신의 큰 책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일본침략자의 亡國奴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가정을 버리고 떠날 용기가 없었다. 그에게 복잡한 심리충동이 생겼다. 그는 위로는 노인께 효성을 다 해야 했으며 아래로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했다. 노인이나 자녀에게 정성을 다 하는 태도는 바로 좋은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의 유약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는 瑞宣의 복잡한 성격을 전개하면서 그의 고통스러운 내심세계를 보여준다. 漢奸 冠曉荷와 大赤包가 찾아오자, 싫어도 그들을 대문 밖으로 내쫓을 용기는 없었다. 그들이 되돌아 간 후에는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으나 다시 찾아오면 여전히 손님으로 대우하였다. 그의 연약함이나 결단성의 부족은 程長順의 탈출을 자문하는 태도에도 나타난다. 조실부 모하고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애국청년 程長順은 수차례 瑞宣에게 北京 탈출에 대해 문의하였다. 瑞宣은 본래 그의 탈출을 격려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외할머니에게 생각이 미치자 매우 난처해졌다. 양심적으로는 감옥과 같은 이곳을 떠나 투쟁에 나서라고 권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그러나 그의 외할머니는 누가 돌볼 것이며, 그가 부딪치게 될 위험과 고난, 심지어 죽게 된다면 자신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 지 망설였다. 이렇게 인물의 복잡한 심리충동을 묘사해야 인물의 갈등에 찬 영혼세계가 독자의 눈앞에 쉽게 전개되며, 독자는 그의 복잡한 성격을 이해하게 된다. 瑞宣 형상의 창조는 항전시기 함락구의 많은 애국적 지식인들의 생활모습과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며 광범한 사회적 내용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단계가 분명한 심리분석은 성실하고 정직하나 마음이 연약한 지식인의 고통스러운 내면세계를 보여주며,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편치 않은’ 심정을 깊이 이해하게 만든다. 라오서는 일상의 평범한 사실에서 인물의 복잡한 심리활동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인물의 개성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음으로 작가의 인물묘사의 특징은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그 인물의 특징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물을 경극의 배우처럼 臉譜化하고 성격묘사도 그 臉譜에 걸맞게 형상화하였다는 점이다.²⁴⁾ 작가는 <四世同堂>을 낭송하여 다수의 청중에게 들려주는 구연문학작품으로 상정하고 창작하였다.²⁵⁾ 따라서 시각보다는 청각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희극의 臉譜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인물의 특징으로써 인물을 대신하는 방법을 자주 활용한다. 예를 들면, ‘작고 마른 얼굴’로 소심하고 계산적인 瑞豊을, ‘맥주통 같은 목’으로 욕심 많고 질투심 강한 瑞豊의 아내 胖菊子の 특징으로 삼고,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거론할 때마다 이러한 특징을 관용구처럼 인물의 이름 앞에 사용하여 인상을 선명하게 하였다. 마치 귀로 듣기만 할 뿐인 소설이지만, 눈으로 직접 그러한 인물을 대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四世同堂>에서 臉譜에 맞게 인물의 성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주로 부정적인 인물의 형상화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²⁶⁾ 부정적 인물의 형상에 대해 작가가 희극적 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소설에 근원하는 것이며, 또한 중국 전통문화 중 京劇의 미학적 장치에 익숙한 민중들에게 인물의 臉譜式 처리는 작품의 효과를 배가하는 것이다. 인물들이 과장적이고 포퓰이 분명한 감정이입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구연문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중국 소설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작가가 통속적 언어로 자신의 애증에 따라 작품 속 인물의 모양을 소조하면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肖像描寫는 說書나 評話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며, 이러한 창작 방법은 비교적 빠르게 독자의 공명을 산다.²⁷⁾

2. 언어 표현상의 특징

<四世同堂>은 언문일치를 위한 라오서의 이제까지의 노력을 집대성한 작품이고, 항일전쟁에서 민중이 역사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민중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한 민중 영웅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백화문은 반문·반백화로 어법상으로는 서구화 경향으로 인하여 민중들의 일상구어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문예계는 30년대의 ‘문예대중화’와 ‘大衆語論戰’, 그리고 40년대의 ‘민족형식토론’ 등을 통해 언문일치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라오서는 논쟁보다는 창작 실천을 통해 민중들의 일상어를 문학어로 다듬어 사용함으로써 언문일치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라오서는 구어

24) 중국 희극에서 臉譜는 배우들의 얼굴에 그린 화장도안으로, 특징을 포착하여 그것을 확대 과장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두드러지게 하는 중국 미학전통에서 유래한다. 臉譜는 인물형상의 특징을 생동하고 알기 쉽게 나타낼 수 있고 함축적이며 간결하면서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25) 구연문학작품으로서의 특성에 대해서는 <《四世同堂》에 나타난 老舍의 언어예술>에서 상세히 논의되고 있음.

26) 大赤包를 묘사한 대목을 예로 들면, 1章 18p, 大赤包의 초상묘사 「冠부인은 이미 50이 넘었으나 빨간 옷을 즐겨 입어 大赤包란 별명이 붙었다. …冠부인의 얼굴도 역시 쪼글쪼글 주름살이 적지 않고 코에도 기미가 많아서 아무리 화장해도 얼굴의 주름과 기미는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보다 더 기고만장한 사람으로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西太后를 찍 닮았다.」; 6章 53p, 大赤包의 성격묘사 「인력거꾼 崔씨를 무시하는 듯 쳐다보지도 않고 말다툼하고 있는 남편 冠曉荷를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 그놈하고 무슨 쓸 데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꺼져버리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하고 외친다. 이에 崔씨가 무어라고 하자, 그녀의 얼굴 위의 까만 주근깨 하나하나에 혈색이 비쳐 나와 검붉은 색으로 분장한 花臉과 같았다. 그녀는 시비조로 덤빌 듯이 두 발짝 바짝 내디뎠다.」 여기에서 주름살과 기미가 많은데다 벌컥 화를 내서 붉어진 大赤包의 얼굴 특징을 花臉에 비유하고 있다.

27) <四世同堂>(人民文學出版社) 第1部 6章 50p, 冠曉荷의 성격묘사와 초상묘사; 第1部 28章 314p, 冠曉荷와 藍東陽의 성격과 초상을 비교묘사.

체에 가까운 문장 창조에 노력하여, 인칭대명사·사물대명사·허사·접속사, 인과나 종속·전환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의 관계사를 가능하면 생략하고, 전통 문언식의 긴밀한 문장구조의 장점을 흡수하였으며, 수식어를 절제하고 토속적인 北京방언 어휘·속담을 채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구어체 문장을 창조하였다. 각종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구어의 현장감을 살리고, 소리 내어 읽으며 창작하면서 귀로 들어 어색하면 곧 수정하곤 하였다고 한다.

작가는 <四世同堂>에서 역사를 민중의 역사로 바라보고, 민중의 항전의지를 고무하고자 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글을 알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쉬운 어휘를 사용하고, 문장구조도 말로 들려주기에 적합하도록 재조직하였다. 중국적인 문예를 창조하고자 한 그의 노력은 <四世同堂>을 민간의 구연문예처럼 말로 들려주고 동작을 보여주는 문체로 창작하도록 이끌었으며, 사용한 언어는 문학적 수식을 버리고 하층 민중들의 언어 그 자체에 접근한 것이었다. 또한 작가는 인물형상화에서 민간 구연문예의 특징을 활용하여, 인물 자신의 말을 통하여 그들의 성격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야 좀 물어보자! 그날, 너 그 더러운 년하고 옆집에 뭐 하러 갔었어?’에서 보는 것처럼 라오서는 이전의 작품과 달리 <四世同堂>의 인물의 대화에서 욕설을 많이 사용하였다. 작가는 인물에 따라 욕설의 경중을 조절하면서 사람의 인체나 능력, 성행위와 관련된 욕설을 다양하게 구사하였다. 주로 성교와 관련된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 인물은 大赤包이며, 이는 그녀의 공격적이고 천박한 성격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남편 冠曉荷에게 ‘제미 헛소리 작작하고 있네(放你娘的驴屁)’, ‘개수작하네(放你的狗屁)’, ‘눈 멀거니 뜨고 오쟁이 진 놈(活王八)’, ‘뒤편하는 개뻐다귀야(算哪道玩藝兒)’라 하거나, 尤桐芳에게 ‘더러운 년(臭娘們)’, ‘짐승 같은 년(畜生)’, ‘요괴 같은 년(妖精)’ 등을 자주 내뱉는다. 또 崔씨나 孫七처럼 남에게 무시당하고 사는 빈민들도 大赤包 무리와 일본을 향해 ‘제기랄(他媽的)’, ‘ 좃같은’ 등의 욕설을 통해 욕구불만을 해소한다. 특히 ‘媽的狗日的’ ‘日他們十八輩兒的祖宗’ ‘忘八日的’ ‘我日他奶奶的’ 등 남성의 입장에서 성교한다는 ‘日’을 쌍관어로 이용하여 일본을 상징한 욕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욕설을 구사한 것은 청중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일본의 부당함에 대한 청중들의 분노를 돋우고자 한 것이었다.

V. 결론

<四世同堂> 3부곡은 北京 小羊圈 골목의 祁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십여 호의 주민들 백여 명의 北京이 함락된 후의 항전수난기로, 祁씨 일가와 錢씨 일가, 그리고 대부분의 小羊圈 골목의 주민들을 일제통치에 저항하는 긍정적 인물로, 冠씨 일가와 그들 측근의 몇 명의 한간을 부정적 인물로 묘사하여, 이들 사이의 선과 악의 대립으로 사건을 전개하였다. 본고에서는 <四世同堂>에 나타난 주제와 전통의식비판, 민중의 항일의식의 변화를 주요 인물의 형상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문학적 표현의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아래의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결론에 대신한다.

1. 작품의 주제는 어떠한 침략자도 중화민족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민족정기와 침략자에 저항하는 민족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며 현대문학사상 일본 점령구 北京 생활을 제재로 한 유일한 장편소설이었다. 작품에는 2종의 사악한 세력이 중국인민의 올바른 국민성 형성을 방해함을 보여준다.

하나는 제국주의 침략과 압박인데 이는 민족정신과 민족심리에 病的인 왜곡을 조성하였다. 둘째는 수천 년 내려오는 인습적 봉건사상으로 민중의 지혜와 능동성을 억압하였다. 이들 모두 민족정신과 민족심리에 진한 상처를 남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작품은 이로 인해 야기된 변질된 민족의식을 비판함과 동시에 또한 전통의식 속에서 발전적인 요소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 전통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반성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2. 작품은 이민족의 점령 통치라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쉬운 극한 상황 속에 중국민족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저열한 근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작가는 일제 침략을 중국민족의 의식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이전에 하층 민중을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파악했던 것과는 달리 역사 진보의 주체로서 그들의 역량을 긍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가 사상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비판적인 현실 인식 또한 어느 정도 극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라오서의 문학적 관심은 여전히 낙후된 시민 의식의 개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관념적인 계몽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작품에서 卍씨 가정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충·효는 개성과 인격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가족 제도 하의 허위적인 예교와는 달리 평범한 일반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며, 나아가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정신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작가는 항전을 통해 민중들과 폭 넓게 접촉함으로써 전통적인 도덕관을 가진 인물들에게서 민족재생의 에너지를 발견하고 ‘중국적인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작품 창작을 통해 수천 년의 문화전통이 가족관계에서 살아 숨 쉬게 하였다. 민중들의 절실한 삶의 문제를 전통적인 민중문화와 결부시켜 이야기를 전개한 것은 민족적 자부심의 확립과 국민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품은 각기 선명한 시대적인 개성을 가지고 생동하는 독특한 특색을 지닌 인물의 계열을 이루며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의 선과 악의 대립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작품은 이들 인물들의 충·효 등 전통문화에 대한 충실성 여부로 선악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으며, 이러한 인물구도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불합리한 봉건전통을 일소하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치는 이중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항일전쟁의 역사적 성격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4. 작품은 일본침략자에 대한 저항의 강도에 따라 주민들의 반응을 대체로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첫째,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한 인물로는 仲石·瑞奎·錢默吟을 들 수 있다. 둘째, ‘소극적 저항’을 실시한 인물로는 瑞宣과 대부분의 가난한 小羊圈 주민들이 있다. 셋째, ‘순응하는 인물’로는 卍天佑와 卍노인을 들 수 있다. 卍天佑는 일본인에게 받은 굴욕감으로 자살했지만, 卍노인은 점차 각성하여 저항으로 나간다. 넷째, ‘중도적 입장’의 인물로는 金三爺를 들 수 있다. 그는 사업상 일본인과 접촉해야 하는 인물로 중국인의 고난을 동정하면서도 일본의 정치선전에 얼마간 동조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협조하는 태도’는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초청이나 강요를 거절하지 못하고, 또한 먹고 살기 위하여 할 수 없이 괴뢰정부의 관리가 된 인물인데 소설에서는 陳野球를 들 수 있다. 끝으로 여섯째는 적극적으로 일본에 아부하며 관직에 올라 그들의 주구가 된 친일파 漢奸으로 藍東陽·大赤包·冠曉荷·招弟·李空山·胖菊子·瑞豐 등이 있다. 작품에서는 영웅적 투쟁을 전개한 인물들이 종전 후 광복된 조국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을 받으며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저항·순응·중도의 자세를 취했던 인물들을 영도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일제에 협조한 자는 주위의 멸시를 받음은 물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것으로, 그리고 친일파 한간들은 대부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大赤包가 감옥에서 정신이상으로 죽었고, 冠曉荷는 생매장 당했으며 招弟는 瑞全에게 살해당하고, 藍東陽은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폭격으로 죽었으며, 특무를 사칭하던 瑞豐도 옥중에서 살해되었다.

5. <四世同堂>에 나타난 민족 간의 성격 특징을 살펴볼 때, 중국인은 겸손함·성실성·조용함·넉넉함·우아함 등의 덕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작가는 그들의 마비된 의식과 결단력 부족,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격에 대해서는 비판하였다. 다음 일본인의 민족성은 죽음에 담대함,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 호전성과 군사위주의 사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부족, 작은 일에는 섬세하나 큰 지혜의 부족, 이용가치가 떨어진 사람은 냉정하게 제거하는 악독함 등으로 나타났다. 고려인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강탈하는 불량한 품성을 지닌 사악한 존재이며, 일본인의 주구로 중국인에게 행패를 일삼는 자로 묘사되었다. 영국인은 대체로 고집스러운 기질과 변함없는 마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작가는 <四世同堂>에서 역사를 민중의 역사로 바라보고, 민중의 항전의지를 고무하고자 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글을 알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쉬운 어휘를 사용하고, 문장구조도 말로 들려주기에 적합하도록 재조직하였다. 중국적인 문예를 창조하고자 한 그의 노력은 이 작품을 민간의 구연문예처럼 말로 들려주고 동작을 보여주는 문체로 창작하도록 이끌었으며, 인물형상화에서 민간 구연문예의 특징을 활용하여, 인물 자신의 말을 통하여 그들의 성격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參考文獻

- 老舍, <老舍全集>, 人民文學出版社, 中國 北京, 1999
- 舒濟選編, <老舍小說經典>, 九州出版社, 中國 北京, 1995
- 舒濟·舒乙編, <老舍小說全集>, 長江文藝出版社, 中國 武漢, 1996
- 關紀新, <老舍評傳>, 重慶出版社, 中國 重慶, 1998
- 洪子誠 <中國當代文學史>, 北京大學出版社, 中國 北京, 1999
- 楊義, <中國現代小說史>, 人民文學出版社, 中國 北京, 1991
- 錢理群 等, <中國現代文學三十年>, 北京大學出版社, 中國 北京, 2000
- 曹書文, <家族文化與中國現代文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中國 北京, 2002
- 宋永毅, <老舍與中國文化觀念>, 上海學林出版社, 中國 上海, 1988
- 陳震文·石興澤, <老舍創作論>, 遼寧大學出版社, 中國 遼寧, 1990
- 金宜鎮, <老舍小說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6
- 金宜鎮, <1920年代 老舍小說에서의 유머와 사상적 특성>, <中國學報>
- 崔順美, <《四世同堂》에 나타난 노사의 言語藝術>, <中國語文學誌> 第11輯, 2002
- 劉麗雅, <蔡萬植과 老舍小說에 나타난 傳統繼承의 樣相에 관한 比較研究>, <中語中文學> 第19集

영 문 요약

One of the best loved modern Chinese authors, Lao She(1899-1966) was famous for his humour and his sympathy with the poor and disadvantaged. He was born in Beijing in 1899, the son of a Manchu soldier killed fighting the Western army that invaded Beijing during the Boxer Rebellion in 1901.

The outbreak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1937-45) radically altered Lao She's views. Between the years 1937 and 1945 he wrote a number of plays and works as a propagandist in the war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and headed the All-China Anti-Japanese Writers Federation. After World War II Lao She published a gigantic novel in three parts, SSU-SHIH T'UNG-T'ANG ("Four Generations Under One Roof", abridged translation The Yellow Storm).

This novel dealt with life in Peking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China, and exposed the cruel behaviour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invader and the Chinese traitors, revealed the process from the regret of national subjugation and the awakening to the resistance. This novel described the national Chinese pride which cannot be destroyed by any other nation. This novel regarded Qi and Qian's families, resistant to the Japanese rule, as the hub of positive characters and regarded Guan's family and his intimate friends, who became traitors of China, as the negative characters, depicted their conflict between good and evil. Rui Xuan, who had been confused between loyalty and piety, with the perception of 'No Nation, No Family', helped Qian Mu Yin and Rui Quan to positively join their anti-Japanese secret activities.

This paper studied the criticism of the traditional way of think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pirit of defiance against Japanese aggression through the image of the major characters and detected his literature expression features depicted in <the Yellow Storm>.

中文摘要

老舍〈四世同堂〉所表現的傳統意識和抗日意識之變化

李丙鎬

作爲一部民族的痛史、憤史的〈四世同堂〉，昭示着中華民族的浩然正氣和無畏氣概。長篇小說〈四世同堂〉全書分爲〈惶惑〉、〈偷生〉、〈飢荒〉三部，小說以北京小羊圈胡同祁家祖孫四代的活動爲主線，輔以幾個家庭眾多小人物屈辱、悲慘的經歷來反映北京市民在八年抗戰中惶惑、偷生、苟安的社会心态，再現他們在國破家亡之際緩慢、痛苦而又艱難的覺醒歷程，同時真實地記述了北平淪陷後的畸形世態，形象地描摹了日寇鐵蹄下廣大民衆的悲慘遭遇和反抗鬥爭，刻畫出一系列栩栩如生的藝術形象，史詩般地展現了中日八年戰爭期間，北京人民抗日帝鬭爭的歷程。作品深刻的思想意蘊表明，一個民族的興衰存亡取決於該民族普遍的社会文化心态。老舍繼承了魯迅改造國民靈魂的五四傳統，他把造成國人性格懦弱、敷衍、苟且偷安的思想根源指向傳統的北京文化，而整個北京文化又是以家族文化爲基礎的。因此老舍在作品中便集中地審視了中國的家族文化，對其消極性因素進行了理性的審視與批判。〈四世同堂〉並沒有直接描寫戰爭的過程與結果，它的深刻意義在於站在人性的立場，對戰爭所帶來的人性的裂變、扭曲、心理的創傷給予了深刻的揭示。

중요 어휘 : 항전의 역사, 망국의 한과 각성, 전통의식비판, 亡國奴, 국민성개조, 항전·구국의 시대정신, 민족 자비심리, 구식시민의 형상계열, 국민성약점, 가족문화, 구 가정 특유의 응집력과 친화력, 민중의 삶과 민중문화, 친일적·순응적·저항적 태도. 관동군, 망국병, 민족정기, 민중의 주체성, 민족정체성, 항일투쟁, 진정한 영웅, 민족의 유전병,新民會, 國恥史, 노예근성, 曲線愛國, 중국인의 지혜, 대동아공영, 일제 주구